

우체국 예금
우체국보험과 함께하는

2023 우체국 문화전

제31회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 수상작품집 ·

www.koreapost.go.kr



우정인재개발원



제3회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집

CONTENTS



| 초등 저학년 |

여지우 10

| 초등 고학년 |

박지원 11

| 중·고등부 |

최서영 14



| 초등 저학년 |

이다은 20

이나경 21

한현비 22

정하은 24

정해린 26

| 초등 고학년 |

태윤지 27

변채은 29

정수훈 31

김민성 33

남민우 36

| 중·고등부 |

조민희 38

이수진 40

이연주 42

박서연 45

김유빈 47



| 초등 저학년 |

김민주	52
신율	53
이채원	54
김서현	55
이지울	56
허유주	57
노윤성	58
이서연	59
박선우	60
고금비	62



| 초등 고학년 |

고마운	63
안시윤	65
임해수	67
이정빈	69
김나현	71
정원혁	73
류하준	74
김시은	76
민유빈	78
이찬희	80

| 중·고등부 |

신정민	81
류원엽	83
조민선	85
이지운	88
조안유	89
오재후	91
이울희	93
임하은	94
정선용	96
이민지	97





| 초등 저학년 |

이루이	102
김서영	103
조은재	104
이민석	106
성우재	108
임하린	109
이예원	111
강은수	112
하예진	113
주아진	115
권설아	116
김동하	117
박시윤	118
염희연	119
김민유	120
최지민	122
조효은	123
양하윤	124
김하린	125
김기현	126

| 초등 고학년 |

노재빈	127
조한준	129
임유진	131
김리아	133
김유환	135
정화준	137
나율이	139
이종윤	142
김지유	144
문서준	146
권은찬	147





문예원	148
이도운	149
김유주	150
기하운	151
장혁주	153
송선우	154
김우현	155
김소울	156
이선울	158



| 중·고등부 |

설하람	160
조운서	161
선민서	162
함유준	163
백희원	164
위다인	165
고은우	167
하정연	168
김민준	169
정원준	170
황은비	171
문정운	172
이서린	173
유나영	175
문시우	176
박은서	178
이시연	179
김수빈	181
조한민	182
김연주	183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발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3 우체국 문화전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가 올해로 제31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오늘의 우체국〉, 〈우정사업〉, 〈미래우체국〉, 〈우리 동네 우체국〉, 〈우체국에 대한 추억〉으로 시, 수필 등 생활문의 형태로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도 총 700여 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되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응모된 작품에는 우체국 가족이 있는 학생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 속 추억 이야기가 많았으며, 우체국 소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간의 정을 이어 주는 상황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우체국 체험과 우체국 미래를 상상하는 글에서는 미소가 지어졌고, 우체국 직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길과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2023 우체국 문화전 글짓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애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글 쓰는 시간을 통해 가진 값진 경험이 큰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심사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비록 수상하지 못했지만 소중한 시간을 우체국 문화전 글짓기 대회를 위해 애쓴 참석자분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여 대회를 빛내주시길 바라며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에서도 본 글짓기 대회를 계속 주최하고 발전 시키면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우정인재개발원 원장직무대리 **엄 화 정**

“소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자”

길을 가다가 아주 가끔 우체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통신수단으로 이제는 편지나 엽서가 아니라 스마트폰 카톡이나 이메일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체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책이나 물건은 지금도 여전히 우체국에 가야지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에서는 올해로 31회째 글짓기 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이용할 줄 아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은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집배원 아저씨와 소포 기사분의 수고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부 저학년 대상 수상작 「아빠와 우체국」을 쓴 3학년 아이의 아빠는 지체장애인인데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5년째 출근하고 있는 아빠는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는데 어학 실력이 뛰어나 외국어로 쓴 우편물들을 아주 잘 분류할 줄 압니다. 이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기특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화합과 협동이 이뤄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우체국임을 알게 하는 글입니다.

초등부 고학년 대상작은 4학년 학생의 작품인데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우편제도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교환교수로 간 아빠를 따라 캐나다 퀘벡시의 불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눈술 작문까지 하는 어려움 속에서 고국의 할머니가 보내주는 여러 가지 산나물 말린 거와 마른 멸치, 오징어채 그리고 학용품을 그곳에서 받으면서 국제우편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세계 어느 곳에 살아도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으니 신기했을 것입니다.

중학생이 대상을 받은 작품은 할아버지가 우체국장을 하신 분이래 어릴 때부터 우체국에 많이 놀러 가서 우체국의 업무가 우편배달에만 있지 않고 예금과 보험 업무도 할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 글짓기 대회의 취지를 잘 알고 있어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글은 부모님이 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는 양심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체국이 정말 편리한 곳임을 이 대회에 글짓기로 참가하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손 편지도 써보기 바랍니다. 집의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이 쓴 편지를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받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이승하** 교수(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전문 분야 : 시인)



2023 우체국 문화전

글짓기 대회

• 대상 •





| 초등 저학년 |
여지우

| 초등 고학년 |
박지원

| 중·고등부 |
최서영



아빠와 우체국

초등 저학년

여지우



우리 아빠는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지체장애인이다.

아빠는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출근을 하신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우체국에 배정을 받아 벌써 5년째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빠는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다. 늘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한다는 느낌이 든다. 난 이런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는 우편물을 동네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구분할 우편물이 많은 날에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신다. 목발을 짚는 것 때문에도 아픈 어깨가 일하느라 더 아프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그래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여러 해 일하다 보니 집배원 아저씨들과도, 우체국 직원분들과도 가족처럼 지내신다. 나도 가끔 우체국에 놀러 가면 아저씨들 모두가 무척 반가워하며 나에게 잘해주신다. 장난감을 주시기도 하고, 간식을 사주시기도 한다.

우리 아빠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랑 일본어도 잘한다. 아빠는 저녁마다 나의 수학 선생님이 되신다. 내가 잘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도 아빠는 다 척척 알려주신다. 해외에서 온 우편물의 주소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아빠가 잘 읽고 알려주신다고 한다. 일본인 아줌마에게서 온 전화도 척척 받아서 멋지게 해결해 주신 적도 있다고 하니, 아빠는 우체국에서도 인기짱인가 보다.

난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아빠가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체국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태평양을 넘어 그리움을 담아



초등 고학년

박지원



“Bon jour! Hi!”

내가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인사말이다. 우리 가족은 지난해 아빠가 캐나다 대학 교수로 초청받아 일 년 동안 캐나다에서 생활했었다. 캐나다는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가 가게 된 곳은 퀘벡주로 프랑스어가 주 언어인 신기한 곳이었다.

학교에서는 나 혼자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불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래도 쉬는 시간과 데이케어 시간에는 영어를 사용해서 다행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불어로 배우는 캐나다의 역사와 2~3주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논술시험은 너무도 힘들었다.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 우선 배운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해하고, 다시 프랑스어로 외워야 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교과서의 내용을 통째로 다 외워서 답안을 쓰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는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엉엉 울기도 했다. 프랑스어는 악센트 표기도 있고, 남녀 성별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기 때문에 문장 하나 하나를 완벽하게 적으려면 수도 없이 외우고, 쓰고를 반복해야 했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나는 캐나다 학교 선생님들께는 천재라는 기분 좋은 별명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는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것들이 마냥 좋아 보였지만 며칠 지나고부터는 조금씩 아쉬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먹지도 않던 김치가 캐나다에서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넘쳐 나는 고기는 먹기도 싫고 왜 자꾸 한식만 생각나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 할머니는 캐나다로 소포를 자주 보내주셨다. 엄마가 돈 많이 들고 할머니 귀찮다고 그만 보내라 해도

할머니는 고춧가루, 마른 멸치, 오징어채 그리고 곱게 말린 고사리와 취나물, 곤드레나물, 미역 등을 계절마다 보내주셨다.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내게 먹고 싶은 것부터 필요한 학용품까지 자세하게 물으시고 여기저기서 쇼핑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머니께서 택배를 보냈다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우리가 부탁했던 것 외에도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깜짝 선물을 더 넣어서 보내주시는데 그게 마치 산타할아버지의 선물과 같았기 때문이다. 내 생일 날에는 캐나다 우리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라고 송사탕과 양말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코리아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국제소포접수 번호로 택배가 언제쯤 도착할지 매년 꼼꼼하게 챙겼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택배서비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택배 발송부터 도착까지의 과정이 휴대폰 알림으로 전달되고 문 앞까지 택배를 배송해 주는 반면에 캐나다는 언제 택배가 배송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나와 형이 집에 있는데도 어른이 없다며 택배를 도로 가져가 버리기도 했다. 캐나다 우체부 아저씨는 '3일 이내로 택배를 찾으러 우체국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는 쪽지만 내게 주고 그토록 기다리던 할머니의 소포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족은 한국 우체국 서비스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되었다. 캐나다로 이사 와서 첫 달엔 대문 앞 우편함에 어떤 우편도 오지 않아 고개를 여러 번 갸웃거린 적도 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인 곳에 우리 동네 단체우편함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우편물을 찾아와야 하는 조금은 번거로운 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나라 우편 서비스는 세계 최고인 것 같다. 덕분에 지구 반대편 먼 나라에서 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한국 제품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내가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할머니가 보내주신 소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요즘 나는 캐나다 미식축구 코치님이 보내주신다는 소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형과 내가 미식축구 주전선수로 활약해 각각의 팀 모두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상품으로 챔피언 반지를 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내 번호와 내 이름이 새겨진 우승 반지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고, 뿌듯하고, 또 그립다. 할머니의 소포가 태평양을

날아 내게로 왔듯이 내 챔피언 반지도 그렇게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와 선물을 캐나다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보낼 것이다. 나에게서는 나의 우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우미, 우편서비스가 있으니까!





활짝 열린 문

중고등부

최서영



할아버지는 우체국장이셨다. 아주 성실하고, 바른. 할아버지의 일과는 아침 7시쯤 집을 나서서 작은 우체국에 도착하면, 밀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바닥을 청소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할아버지께서는 10년이 훌쩍 넘게 당신의 승합차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체국 택배 상자들을 나르셨다. 과수원 농가의 수고를 덜고자 할아버지께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과일 상자를 신고, 우체국까지 돌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 주셨다. 낮은 자세로 섬겨주셨기에 그랬던 것 같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차로 나를 병원이며 학원에 데려다주셨기 때문에 내게도 익숙한 할아버지 차 트렁크에 할아버지의 시간이 담겨 있고,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 쉽게 헤아릴 수 없는 할아버지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트렁크에 한가득 택배 상자들을 쌓고 또 나르셨을 할아버지를 생각하자 그 근면함과 삶을 대하는 자세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또한 할아버지께서 허리를 상해가면서 온 마음으로 일하신 우체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우체국은 할아버지가 한 몸 바쳐 일구신 일터였다. 그래서 나에게 우체국은 각별하다. 요즘 내 또래는 우표를 수집하거나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에 갈 일이 없다. 안전하고 친절하게 택배를 취급해 주는 기관 정도로만 알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나는 가까운 가족이 우체국에서 근무하셔서 우체국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우체국은 소통의 창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체국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직원들이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필요하면 돈도 바꿔주는, 동네의 주민센터 같은 풍경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아버지가 근무하시던 우체국에 찾아간 적이 있다. 마감 시간이라 직원들은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는데 창구에 앉아 십 원, 백 원, 오백 원

등의 동전들을 정리하는 직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우체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체국은 편지만 담당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은행처럼 돈도 바꿔주고 금융 업무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시절의 나는 계산대에서 지폐들과 동전들이 예쁘게 담겨 있는 서랍을 자유자재로 여닫으며 동전을 탁탁 꺼내서 거스름돈을 척척 내놓는 일을 동경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든 서랍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과 그 일을 하는 우체국 직원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다. 또 그때는 창구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기업과 고객이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오직 위아래가 뚫린 창구만이 그 둘을 가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또한 창구가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기업과 소통하는 풍경은 생경하고도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감탄하며 보았던 창구를 우체국에서도 보게 되자 소통하는 우체국이라는 우체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된 것은 물론, 우체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다. 그때 우체국이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융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정부가 열어놓은 하나의 문이라는 느낌 말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각종 보험을 우체국 보험으로 들어놓았다고 엄마가 이야기해 주셨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해 주셨다. 태어난 후에 생명보험, 아플 때를 대비해서 실비 보험,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등 여유롭지 않은 집안 살림에도 우체국 보험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고 엄마가 이야기하셨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도 엄마는 곳곳하게 어려움을 헤치고, 나와 동생을 보살펴 주셨다.

우리 가정이 실질적으로 우체국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일도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 저녁에 7살 동생과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평상시라면 날쌔 표범처럼 날아다닐 동생이 느릿느릿 걸었다. 엄마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엄마를 만나자마자 식당에서 남동생이 쓰러졌다. 119차가 오고, 동생과 엄마는 병원으로 갔다. 원인 모를 발작을 일으키던 동생이 너무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병명을 찾았다. 뇌수막염이었다. 뇌전증 가능성도 있어서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은 뇌파 검사를 받으러 다녔다. 다행히 지금 동생은 아주 건강하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주사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병원비가 나오고, 입원비용이 지원되어서 우리 가족은 어려운 상황을 한결 쉽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

줄곧 우체국이 하는 일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편지 배달, 금융 업무, 보험 사업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업무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들이었다. 우체국의 업무는 모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 서민의 심부름꾼, 서민을 보호해 주는 자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택배와 금융과 보험이 어우러져 우체국은 언제나 국민의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편지와 택배를 배달하고 돈을 바꿔주고 창구에서 예금과 적금을 소개하고 가게를 관리해 준다. 또 저렴하고 혜택이 좋은 보험으로 개인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주고, 살림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우체국은 정부가 열어놓은 또 하나의 문 같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체국이 국민 친화형 금융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 같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며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우체국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우체국의 마스코트, 우리 할아버지께도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023 우체국 문화전

글짓기 대회

• 최우수상 •





| 초등 저학년 |

이다은
이나경
한현비
정하은
정해린

| 초등 고학년 |

태윤지
변채은
정수훈
김민성
남민우

| 중·고등부 |

조민희
이수진
이연주
박서연
김유빈





하늘로 가는 편지

초등 저학년

이다은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다은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있으신 곳은 어때요? 하늘나라까지 편지를 배달할 수가 없어서 산소에 두고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편지가 젖을까봐 걱정이예요.

얼마 전에 엄마를 따라 서울에 사는 이모한테 택배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다 왔어요.

외할아버지 우체국에서는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면 집배원 아저씨가 꼭 가져다준대요.

주소만 잘 적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한테는 아무리 훌륭한 우체국 아저씨라도 못 전해 드리잖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쓰아 올린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올라가는걸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외할아버지가 있는 하늘나라까지 도착이 된거예요.

진작 알았다면 누리호 안에 넣어서 외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전해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다음에 커서 누리호처럼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빨간 우체통을 만들 거거든요.

그 속에 차곡차곡 적었던 편지들을 넣어서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편지들이 반짝반짝 별처럼 하늘에 둥둥 떠 있을까요? 우체국에서 하늘나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빨리 생기면 좋겠어요.

자주 인사도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외할아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빵을 먹다가 이가 썩 빠진 이야기부터 유준이가 유치원 달리기를 1등한 이야기도요. 그러니 외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셨죠?

우체국과 함께 커가는 행복



초등 저학년

이나경



저녁 늦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가 안아 주시면 생선비린내가 난다. 생선회를 파는 가게를 하시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너무 싫었지만 이제는 엄마의 냄새가 너무 좋다. 우리를 잘 키워주시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엄마가 매일 고마워하며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체국 택배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체국 표시가 있는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가게는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엄마는 우체국 택배는 바빠서 직접 수산 시장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선하게 빨리 배달되어 너무 좋다고 하신다. 더운 여름에도 살아 있는 전복이나 꽃게가 아이스박스에 담겨 배달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주말에 쉴 수 없어서 놀이공원에도 같이 놀러 가지 못해 택배가 가게에 오지 않기를 바란 적도 있었지만 어김없이 택배는 왔다. 딱 두 번 가게 문을 닫고 우리 가족이 함께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바로 택배기사가 쉬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택배 없는 날인 8월 14일이었다. 그날은 엄마에게서 생선 냄새 대신 화장품 냄새가 나고 예쁘게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우체국장이 된다면 주말에는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싶다.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기사님과 우리 부모님이 쉴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장사가 끝나면 집으로 오시는 길에 우체국 365코너에 들러서 그날 번 돈을 입금하신다. 밤에도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얼마 전에는 우리 가게를 사고, 아파트로 이사도 했다. 부모님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했더니 '그건 다 우체국 덕분이야!'라고 하시며 우체국이 있어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셨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우체국인 줄 알았는데 더 큰 행복도 가져다주는 우체국과 함께 미래에 우체국장이 되는 나의 꿈도 커가고 있다.



따뜻한 우체국

초등 저학년

한 현 비



나는 빨간색을 제일 좋아한다. 좋아하는 빨간색이 많은 곳,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곳, 바로바로 우체국 문 앞이다.

전학을 온 나는 예전 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어 편지를 쓰고 부치러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갔다. 편지를 부치러 막상 오니 전학 온 게 한 번 더 실감이 났다. 빨간 우체통과 빨간 간판을 보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을의 상징인 붉은 단풍나뭇잎이 생각났다. 곧 가을이 올 텐데 단풍잎이 떨어져 있는 이곳 우체국 풍경도 그림처럼 예뻐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흰색 귀퉁이만 빼꼼 얼굴을 내민 편지가 꽃혀 있었다. 꼭 친구가 보낸 답장일 것 같아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에 갈 때의 설렘처럼 들렸다. 바람처럼 달려가 확인해 보니 역시! 친구의 답장이다.

나의 기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지! 편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 아빠는 주로 핸드폰을 통해 모든 연락을 하지만 난 아직 핸드폰이 없다. 나와 내 친구를 이어주는 것은 집배원 아저씨와 우체국뿐이다. 나와 내 친구가 열쇠라면 집배원 아저씨와 우체국은 열쇠 구멍 같은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우체국은 집 다음으로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옛날의 우체국은 편지만 전달했지만, 지금은 택배도 보내고 미래에는 로봇이 대신해 줄까 기대도 된다. 하지만 로봇만 있는 우체국을 상상하니 조금 슬플 것 같다. 처음 왔던 우체국이 낯설었는데 웃으며 반겨주는 직원 아저씨의 미소가 없었다면 많이 긴장했을 것이다.

따뜻한 우체국, 따뜻한 편지, 따뜻함으로 주고받는 설레는 마음! 따뜻함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내가 우체국을 생각한 느낌이다.

며칠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얼른 답장을 써서 따끈한 편지를 들고 따뜻한 우체국으로 달려갈 거다.

설레는 마음을 풍선처럼 매달고!!!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일기



나는 편지 지킴이 우체통



초등 저학년

정 하 은



나는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빨간 우체통이다. 나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뚝하니 서 있다.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치고 우체국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중에 나에게 편지를 넣고 가는 사람도 있다. 내 입으로 철킹 문을 열고 편지가 쑥 들어온다. 나는 편지를 넣는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지켜본다. 표정에서 보이는 건 기쁨일까? 아니면 슬픔일까? 나는 편지를 내 안에 꼭꼭 품고 곰곰이 생각한다.

봄이 왔다. 겨울 동안 잠자고 있던 새싹들이 나의 옆에 나란히 피었다. 나는 새 편지가 들어오길 기다린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나를 간지럽히면 나는 더욱 기대어서 마음이 설렌다. 덜컹하는 소리에 눈을 떠 보면 편지 하나가 쑥 들어와 있다. 예민이가 민규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눈을 다시 감고 편지를 조용히 품으면 그 편지에 쓰여 있는 기쁜 마음이 천천히 나에게 전해진다. 벚꽃이 많이 피어서인지 꽃놀이를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편지가 잘 전해지길 기다리며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다.

여름이 왔다.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매미 소리를 듣고 바쁜 여름을 느껴본다.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다. 에어컨 바람을 찾아 우체국 안으로 들어오는 할아버지도 계신다. 날씨가 더워도 나는 깨끗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 덥다고 편지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 아이 손이 쑥 내 입으로 편지를 밀어 넣었다. 받는 사람에 최길순 할머니라고 쓰인 것을 보면 더운 여름날 할머니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우체부 아저씨가 올 때까지 편지가 더위에 지치지 않게 내 그늘 안에서 잘 쉬게 해야겠다.

가을이 왔다. 가을은 여름 더위에 고생했던 사람들의 열을 식혀주는 좋은 날씨이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나무 덕분에 빨간 내 모습도 나무와 같이 가을 풍경이 된다. 빨갭게 잘 익은 사과 색깔을 닮고 싶다. 나무를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새 편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번에는 예쁜 엽서 한 장이 들어와 있다. 친구에게 보내는 엽서인데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도토리를 손에 들고 있는 다람쥐 그림이 괜히 내 뱃속을 간지럽히는 것 같다. 가을은 참 간질간질한 계절이다.

겨울이 왔다. 날씨가 훨씬 추워졌다. 서리를 맞은 내 머리에 하얗게 반질반질한 물기가 얼어있다. 난 이 추위에도 끔찍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편지에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아니까 내가 엄살을 부릴 수 없다. 호호 손을 불며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간다. “우체국 안에 들어와서 잠시 손 녹이고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겨울에도 색이 바래지 않는 빨간 우체통이다. 색이 바래지 않는 나는 겨울을 잘 보내라고 사람들을 응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많이 한다. 우체통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까. 나는 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쓴 글에 녹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나는 정말 좋다. 편지를 보내며 기다리는 시간의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편지 지킴이 우체통이다. 황성동 우체국 앞에서 매일 매일 이렇게 서 있을 것이다.



우체국 언니에게 보낸 편지



초등 저학년

정해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갔다. 처음 가보는 우체국은 신기했다. 편지를 어떻게 부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뒤를 보니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자 우체국 언니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는 상자에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을하는 곳이야. 편지를 보낼 거니?” 우체국 언니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택배와 편지들이 가득했다. 나도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려는데 많은 택배와 편지를 보니 우체국 언니가 힘들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 언니에게도 편지를 썼다. 그리고 편지를 언니에게 주었다. “언니, 힘내세요! 언니 덕분에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체국 언니는 내가 쓴 편지를 보고 배시시 웃었다. 우체국 언니가 웃으시는 걸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조금 불편하면 어때, 행복이 100배



초등 고학년

태 운 지



내가 처음 우체통을 알게 되었을 때는 5살이나 6살 때였던 것 같다. 내가 큰집인 창원에 놀러 갔을 때 언니들과 돌섬해상유원지라는 곳에 놀러 갔다. 그곳에는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라고 쓰여있는 내 키보다 커다란 우체통이 있었다. 언니들은 신이 나서 엽서를 쓰기 시작했다. 나도 사촌 언니들과 같이 엽서를 써 우체통에 넣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엽서를 썼던 날이다. 그 엽서는 지금도 내 책상 옆에 붙어있다.

나한테는 지은이모라는 멋진 이모가 계신다. 그 이모께서는 어디든 여행을 가시면 나에게 꼭 그곳 풍경이 담긴 엽서를 선물해 주신다. 그리고 늘 나에게 편지와 엽서를 보내주신다. 이모가 보내주시는 엽서나 편지를 꺼낼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읽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 그래서 나도 나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편지나 카드를 보내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일 년에 두 번씩 편지나 카드를 만들어 보낸다. 바로 스승의 날과 크리스마스 날이다. 스승의 날에는 그동안 나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편지를 보낸다. 그분들 중에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다. 바로 6살 때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셨던 조민정 선생님과 3학년 1학기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2학기 때 백석초등학교로 전근 가신 한영완 선생님이다. 조민정 선생님의 편지에는 예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얼마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지, 한영완 선생님의 편지에는 전근 가신 학교생활은 어떠신지 재미있고, 궁금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1년 동안 나를 아껴주셨던 선생님, 이모, 삼촌 등 등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카드를 쓰고 예쁘게 꾸며서 보내드린다. 내가 카드를 들고 우체국에 가면 그곳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요즘에도 카드를 써서 보내는 학생이 있네.”하시며 웃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우체국을 나온다. 솔직히 엄마께서는 꾸미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신다. 하지만 나는 그 카드와 편지를 꾸미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엄마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다. 요즘 친구들은 핸드폰의 메신저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나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성껏 편지나 카드를 쓴다.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편지나 카드를 쓸 때의 기쁨을... 다른 친구들은 우체국이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우리 집처럼 익숙한 곳이다. 난 친구들이 핸드폰이 아닌 조금 불편하더라도 편지나 카드를 써 우체국에 가서 직접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직접 넣어 나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우리 집에 있는 동전이 가득 찬 웃고 있는 빨간 돼지 저금통처럼 우리 집 앞에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빨간 우체통들이 내 돼지 저금통처럼 활짝 웃는 날을 꿈꿔본다.

“얘들아, 조금 불편하면 어때? 돌아오는 행복이 100배인걸?”



바람과 함께 날아온 할머니의 편지



초등 고학년

변채은



‘목요일 3시 30분… 31분… 32분…’

“할머니 편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케 안 오노?”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나는 경상도 사투리가 물씬 풍기는 말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엔 우리 집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매주 목요일이면 3시부터 5시 사이 개포동을 방문하는 우체부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를 2층 창문 귀를 데고 나는 기다린다. ‘끼익’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쓴살같이 뛰어 내려가면 대구로부터 바람에 실려 온 듯한 할머니의 향기로운 꽃무늬 봉투에 담긴 편지를 받게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길로 키워진 아이이다. 처음에는 엄마의 직장 생활로 외할머니는 나를 맡아 키우셨고, 4살부터는 암 투병을 하는 엄마의 자리를 할머니는 단단한 두 팔로 나를 끌어안으셨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렇게 할머니의 품 안에서 병아리처럼 성장한 나는 초등학교를 진학 하고 난 뒤 엄마의 병이 어느 정도 치료된 후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눈이 붉어지게 울던 나와 할머니의 이별 장면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다고 기억하며, 이제는 웃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그리운 대상이다.

이런 할머니와 나는 매주 서로 편지로 그 주의 소식과 학교생활, 그리운 대구 소식을 주고받는다. 물론 아주 급한 소식이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쫄르르’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편지가 전해주는 정성스러운 글씨에서 묻어나는 사랑은 전화에서는 느낄 수 없다. 할머니께서는 가만 볼펜으로 한 자, 한 자를 꼭꼭 눌러 쓰시는데 나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지난날의 추억도 함께 읽어 내려간다. 봄날에 전해지는 할머니 편지에서는 즐겨

가던 공원의 왕벚꽃 향기가 나고, 여름의 편지에서는 이글거리는 대구의 태양이, 가을은 수목원의 국화 향기가, 겨울은 지독하게 앓았던 독감의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마치 사진을 본 듯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매번 받은 편지를 보물 상자에 담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할머니와 나는 상인우체국과 개포우체국 인근에 산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그리며 미소를 머금은 채 정겨운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

할머니께서는 나의 글숨씨가 날로 좋아지고 있고, 글자도 예뻐지고 있다고, 5년 치의 편지를 꺼내 보는 게 흐뭇한 낙이라고 하신다. 나는 엄마의 잔소리에 쫓겨 내 방에 와서 5년 치의 보물을 꺼내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편지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한아름 담겨있다.

그런데! 얼마 전 받은 편지에 할머니의 글자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엄마,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냐?”

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너머로 엄마와 할머니의 전화 소리가 들렸다. 여름철 식중독을 앓았다는 할머니는 이제 거의 나아지셨다고 하셨다.

“아이고, 그놈의 가시나가 눈치가 백 단이네.”

글씨를 통해 할머니의 건강을 알아챈 나를 엄마는 신기하고 대견하게 바라보셨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편지로 할머니와 나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서로의 집안에 소식통이 되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 고생하시며 편지를 전해주시는 우체부 아저씨를 오늘은 시원한 생수를 한 통 들고 기다렸다. 어김없이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은 아저씨는 시원한 생수를 너무나 고마워하셔서 민망스럽기까지 했다.

돌아서는 경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손에는 또 할머니의 그리운 소식이 들려있다. 편지 덕분에 나의 일주일엔 풍성해지는 느낌이다.



이불킥

초등 고학년

정수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우체국을 능숙하게 이용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대해 어설피게만 알던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의 생신이 가까워지던 어느 초여름날, 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계시는지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정성스럽게 생신 축하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무늬 편지를 특별히 골라, 못난 글씨 예쁘게 보이려고 꼭꼭 눌러서 썼지요. 며칠 후 편지를 받으시고 깜짝 놀라실 할머니를 생각하며, 실실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고 우체통에 넣었지요.

며칠 후, 제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누군가에게 편지 받을 일이 없어 의아했던 저는 봉투에 쓰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글씨체를 보다가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받는 이, 보내는 이를 바꿔 써서, 우리 집 주소로 배달이 된 거였지요! 아, 세상에서 저만 아는 실수였지만 어찌나 부끄럽고 쪽팔리던지! 할머니께 편지 얘기는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전화로 생신 축하드린다고 통화만 드렸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날 이후 저에겐 받는 이, 보내는 이는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 첫사랑과 관련된 일이에요. 평소 같은 반에 좋아하던 여자아이의 집 주소를 수업 시간 중 우연히 알게 되어, 여름방학 잘 보내고 한 달 후에 반갑게 보자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지요. 그런데 편지만 달랑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주워 온 예쁜 소라껍데기들과 손톱만 한 귀여운 현무암도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지요. 우체통도 부끄러운지 빨간색이었어요.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첫사랑이 누군지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었어요! 여름방학 2일째, 영어 학원을 다녀왔는데, 엄마가 좀 전에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편지만 넣어야지, 이렇게 물건을 넣으면 안 된다고, 물건을 보내고 싶으면 택배를 부쳐야 한다고 제 편지를 돌려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편지는 안 열어보셨지만, 봉투에 적힌 첫사랑 이름도 들통이 나고, 하필이면 제가 여자아이 이름 옆에 핑크색 하트도 두 개나 그려놔서 완전 망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편지를 받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킶했어요! 지금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망신스러운 경험을 두 개나 공개하는 이유는, 어린 후배들이 제 사연을 읽고 웃으며 후배들만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우체국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늘 특별하지만, 제 경험처럼 특별한 일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핑크색 하트가 뭐예요!



희망을 배달하는 우리의 친구



초등 고학년

김민성



나는 밖으로 몇 걸음만 걸어 나가도 널리 펼쳐진 푸른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 전남 광양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과 할머니 댁은 아파트 위아래층으로 부모님께서 맛별이를 하셔서 나와 동생은 학교를 갔다 오면 종종 아래층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도 한다.

“땡땡 땡땡!!”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그럴 때면 나와 동생은 동그란 눈으로 부리나케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서 어떤 물건이 왔는지 서로 뜯어본다고 택배 박스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었고, 급한 마음에 서로 뜯겠다며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택배입니다”라는 기사님의 목소리는 내가 하루 중 제일 기다리고 반가운 목소리였다. 그렇게 많은 택배 기사님들이 우리 집을 거쳐 가셨지만 3~4년 전쯤 우리 집에 가장 자주 오셨던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 시절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입니다. ○○○님 되시나요? 택배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일하시기 힘드시죠?” “아닙니다 허허 감사합니다.”라는 일상적이면서도 따스한 대화가 들려오곤 했다.

그때는 매우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와 우체국 택배 기사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대체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기사님이 오실 때마다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시며 스스럼없는 대화를 나누시는지도 궁금했다. 아저씨가 가시고 난 후 나는 할머니께 여쭙어보곤 했다.

“할머니!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란 친하세요? 아니면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런데 우체국 택배 기사님만 유독 할머니께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대화도 오래 하세요?”

“응~ 그건 기사님께서 먼저 친절하게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할머니도 같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지.”

그 이후로 나는 우체국 택배 기사님께서 방문하시면 쫓르르 달려 나가 할머니와 함께 인사를 하였고 기사님께서 그런 나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다. 할머니께선 고생하신다며 음료수 한 캔과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하지만 이따금 그런 택배 기사님과 나누었던 즐거운 시간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우체국 기사님께서 어김없이 할머니 집에 택배를 배달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기사님의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보였다. 기사님은 할머니와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더니 택배를 두고 가셨다.

“에휴... 기사님도 일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어...”

“할머니 기사님께 무슨 일이 있으시대요?”

“아랫집에 사는 605호 할머니 집으로 택배를 전달하러 가셨는데 집에 아무도 없대더군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서울 아들집에 올라가셨대. 그런데 막무가내로 오늘 도착한 택배를 서울 아들집으로 다시 보내주라고 성화를 내셨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그게 아저씨 맘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다시 주소를 쓰고 보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렸던 나조차도 그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는데, 605호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게 말이다. 우체국 아저씨도 일하시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많이 힘드실 것 같구나...” 그 이후로 아저씨는 두세 번쯤 할머니 집에 방문하시고 다른 분께서 오시게 되었다.

할머니께 왜 그 아저씨는 안 오냐고 여쭙보니 할머니께서도 아저씨가 바뀐 것 같다며 아쉬워하셨다. 그동안 저희 집에 택배 갖다주셔서 감사했다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나 또한 아저씨가 그리웠다. 할머니와 기사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나도 행복해지곤 했던 시간들도 전부 그리웠다.

“기사님은 분명 더운 날씨에 이리저리 택배를 배달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거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드리는 음료수 한 캔과 친절한 대화 몇 번이 기사님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지 않겠니? 비록 할머니는 그 기사님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서로 힘이 되어

준다면, 그것 또한 친구라는 거란다. 너도 친구를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지 않니? 택배 기사님과 할머니도 별반 다르지 않단다.”

친구. 택배 기사님을 친구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내 인생에서 택배 기사님은 늘 친구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아님에도 괜히 오늘 택배가 올 거라는 할머니의 말에 왠지 모를 기대감을 품던 순간, 내가 직접 음료수 캔을 쑥 내밀면 기사님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순간.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그때 택배 기사님이 희망과 애정이 담긴 시간을 배달하는 우리 가족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기사님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른다. 분명 친구 같은 기사님이지만 택배 배달로 맺어진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 더는 만날 수 없는 기사님은 우리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오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차갑게 우뚝 서 있는 아파트들을 헤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온기의 시간을 안겨주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택배 기사님의 환한 미소와 굵은 땀방울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든 매순간들과 시간 속에서 깊은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마치 희망을 배달하는 우리 가족의 친구, 우체국 택배 기사님처럼 말이다.



진짜 편지를 받는 기쁨



초등 고학년

남민우



나는 매일 우리 동네 성당 옆 우체국을 지나간다. 매일 봤지만 우체국에 대해 별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편지나 택배를 부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메일, 문자,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선물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니 더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우체국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우편물이 배달왔다. 그건 바로 '국토 사랑 글쓰기 대회 상장'이었다. 작년에 나는 처음으로 글쓰기 대회를 나갔다. 거의 이천 자나 글을 썼다. 그래서 쓸 때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런 양의 글쓰기는 내 인생 처음이었다. 솔직히 일기도 한 바닥 쓰기도 힘들다.

그래서 쓰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언제 이천 자를 다 쓰나!', '내가 이글을 내는 날짜 안에 다 못 쓸 것 같다.' '이천 자의 끝은 어딘가?' 등이었다. 그리고 이천 자를 쓰는 동안 너무 팔이 아팠다. 손으로 계속 쓰고 지우고 생각하고, 계속 쓰고 지우고 생각하고, 계속 쓰고 지우고 생각하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쓰고 나니 너무 뿌듯했다. 그 기쁜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다. 내가 쓴 글을 커다란 노란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서 부쳤다. 열심히 쓴 건 기억에 남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몇 달 뒤 선생님이 내게 교무실로 급식을 다 먹고 내려오라고 하셨다. 교무실 선생님이 큰 봉투를 주셨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금방 눈치를 채진 못했다. 나에게 이런 커다란 편지 봉투를 주시다니... 아이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애들도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무척 궁금했었던 모양이다.

난 봉투를 집에서 뜯었다. 세상에 상장이었다. 내가 대회에서 상을 탄 것이었다!!! 나는 그때 진짜 봉투를 받고 뜯고, 적힌 내용을 보면서 신이 났다.

어쩌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메신저 때문에 이용객 수가 점점 적어지니까 먼 미래에는 우체국이 사라질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진짜 편지를 쓰고 받는 그 기대되는 마음을, 상장을 받으면서 느낀 나는 지금 같은 우체국이 계속 존재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나는 작년에 받은 '상장' 때문에 진짜 편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체국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알게 되었다. 그냥 문자나 메일로 내 수상 소식을 받았다면 봉투를 뜯을 때의 두근거림은 없었을 것이다.

진짜 편지는 더 생동감이 있고 '내가 이 편지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연필로, 볼펜으로 글을 써서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부치고 싶다.

우체국이 소중한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상이 들어있는 봉투를 뜯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더 느끼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기쁜 소식을 진짜 편지로 받아보고 싶다.





반찬과 제비

중고등부

조민희



6월의 어느 아침. 조금 훈훈한 날씨이지만 싱그러운 날이다. 할머니와 나는 아침부터 매우 분주하였다. 집안은 맛있는 반찬 냄새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먼 타지 일본에 사는 아들 생각에 행복해 보이셨다. 난 그런 할머니를 도와 삼촌에게 보낼 한국 반찬들을 포장하고 있었다.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진미채, 붉게 빛나는 멸치볶음을 맛보니 고소한 단맛이 나고, 뿌듯한 감정이 차올랐다. 먼저 다 된 반찬들을 반찬 통에 넣고 흑여나 밖으로 썰까봐 여러 번 랩으로 정성스레 싼 다음 커다란 상자에 반찬들을 차곡차곡 넣었다. 할머니가 지난달에 담으신 고추장도 새지 않게 플라스틱 통에 넣었다. 그리고 삼촌에게 보낼 음식들이 담긴 상자를 들고 우체국에 갔다. 우리 동네 사당동 우체국은 작지만, 푸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어르신 몇몇 분들이 소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다. dingdong~ 소리와 함께 내 번호가 빛을 내며 나를 불렀다. 나는 창구에 계신 직원분의 미소에 기분이 좋았다. 직원분께 일본 EMS 라고 말씀 드린 뒤 삼촌의 집 주소를 적고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접수했다. 접수해 주셨던 직원분이 밝게 웃으시며 누구한테 보내는 택배냐고 말을 걸어오셨다. 난 타지에 살아 한국 반찬이 그리운 삼촌에게 보낸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직원분은 웃으며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고 안전하게 잘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직원분의 말씀에 난 그분이 나의 설레는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친근감을 느꼈다. 접수를 다 마치고 난 삼촌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만약 우체국이 없었더라면, 타지에 사는 나의 삼촌은 한국에 귀국하지 않는 이상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국 반찬을 먹기 어려웠을 것 아닐까. 빠른 해외 우편이 있지만, 우체국과는 다르다. 우체국은 택배비도 합리적이고,

절차도 간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친절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늘 기분 좋게 이용한다.

며칠 뒤 삼촌에게서 편지가 왔다. 택배를 잘 받았고 보낸 반찬들이 맛있어서 과식을 했다는 연락이다. 삼촌이 행복해 보이셔서 우리 가족은 기분이 좋았다. 또 시간이 흐른 몇 주 뒤 삼촌에게서 커다란 택배가 왔다. 얼핏 봐도 삼촌의 정성이 가득해 보였다. 우리 가족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상자로 인해 행복에 가득 찼다. 삼촌이 보내주신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삼촌의 정성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다. 삼촌께서도 우리가 보낸 택배를 받을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삼촌이 보내준 달달한 일본 녹차과자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삼촌이 우리 가족에게서 받은 행복을 고스란히 다시 간식들이 가득 담긴 택배에 담아 보내주신 것 아닐까. 어쩌면 우체국은 단순히 택배를 전달해 주는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가족 간의 따뜻한 행복을 전달해 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게 아닐까. 흥부에게 복을 가져다준 제비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우체국의 상징인 제비가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우체국은 마음을 싣고



중고등부

이수진



우리 부모님은 인삼 관련 매장을 운영하십니다. 인삼 관련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엄마는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다가 감사 편지를 손 글씨로 정성스럽게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그 생각을 한 후, 우리 가게에 오신 모든 손님에게 엄마는 감사 편지를 썼다. 무려 15년 동안 말이다. 엄마의 손 편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손으로 편지를 쓰는 일은 쉽지 않다. 편지지를 사고 손님을 떠올리며 무슨 말로 고마운 마음을 전할지 표현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우체국에 직접 가서 편지를 보내는 수고로움도 들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 엄마는 더 바빴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15년을 했다는 것이 나는 너무 놀라웠다.

요즘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지 않아 우체통도 사라지는 추세이다. 당연히 우체국에서 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역시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SNS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더 편하고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궁금해서 왜 귀찮게 손으로 일일이 써서 편지를 쓰는지 부모님께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다. 어느 날, 가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오셨다고 한다. 손에는 엄마가 보낸 편지를 들고서 말이다. 어르신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주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연신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한다. 부모님은 그분의 말을 듣고 더 감격하셨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 먼 곳에서 일부러 매장을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까 말이다. 그 때문에 엄마는 펜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 나는 부모님이 주말에 근무하고 계실 때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밥 시간 때 매장에 오면 엄마는 항상 고객님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계셨다.

솔직히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SNS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편지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다. 정성을 들어서 편지를 쓰면 그 마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SNS로 마음을 전하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가벼워 보일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편지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손 편지를 받고 기뻐하시는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 마음을 알아주어서 힘든 줄 모른다는 말씀도 덧붙이면서 말이다.

그리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체국에 손 편지를 부치러 가시는데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다.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진짜 꾸준히 매주 이렇게 쓰시려면 손 아프시겠어요”라고 하셨다. 하지만 엄마는 우체국에 갈 때마다 신이 나신다고 하셨다.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우체국을 가서 따라나선 나 역시도 우체국에 갈 때마다 뭔가 재미있고 설레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엄마는 그곳에서 편지만 부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무도 보고 택배도 부친다. 보험을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내게 우체국의 이미지는 만능인이다. 한곳에서 뭐든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나에게 우체국은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엄마는 이번 주에도 우체국에 가서 정성을 기울이며 쓴 편지를 보낼 것이다. 엄마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또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체국은 그래서 엄마와 나에게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저희 할머니 성함은 김금연입니다.



중고등부

이연주



“다음 역은 경주역입니다. 내리실 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안전하게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찾은 할머니 집, 거실 벽 중앙 높은 곳에 걸려있는 내 백일사진을 보니 이름 모를 서러움이 차올랐다. 그동안 뽀얗게 쌓인 먼지를 비롯해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듯한데 ‘이게 누고 우리 연주 아이가?’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버선발로 집 마당을 내려오시던 그분 우리 할머니가 보이시지 않는다. 2019년 8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인해 할머니 기일이 되어도 시골에 내려갈 수 없었던 우리 가족은 올해에서야 할머니 기일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늦둥이고 할머니 집과 거리도 있어서 자주 뵈지도 못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셨고 ‘우리 연주, 우리 연주’를 입에 달고 사셨다.

3학년 여름 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다 함께 점심을 먹은 후 나는 마루에 배 깔고 누워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연주 뭐하노? 그림 그리나?”

“할머니, 숙제하고 있어요”

한참 동안 숙제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던 할머니께는 말없이 작은 쇼핑백 같은 가방 하나를 갖고 나오셨다. 그 가방 속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사용하는 국어 공책과 작은 필통을 꺼내 보여주셨다.

“연주야, 보라 이거 할매 작기장이고, 이걸 할매 필통이다. 연주는 3학년이제? 할매는 이제 1학년인가라”

“네? 할머니께서 1학년이라고요? 할머니도 학교 다니세요?”

“그래, 할매도 노인학교 안다니나, 할매도 이 작기장에 글씨도 쓰고 안하나”

“우와~ 우리 할머니 최고로 멋있어요. 하하하”

내가 엄지손가락을 척하니 보여드리자 할머니께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크게 웃으셨다. 난 그때 작기장이 국어 공책인 줄 알았다.

작기장이란 지금 우리들의 수첩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 노인학교 가시면 재미있으세요? 짝도 있어요? 뭐 배우세요? 점심은요? 선생님도 계세요?”

한꺼번에 터진 나의 질문에 할머니께서는 귀찮은 기색 없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학교 가면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할머니들과 함께 어울려 급식소에서 점심도 드신다고 하셨다. 매일매일 학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신다고 하셨다.

“연주야, 연주가 그린 이 그림이 나비 아이기가?”

“네, 맞아요 할머니, 방학 동안 재미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기인데, 저는 어제 마당에서 본 나비가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있어요”

“잘 그랬네~ 연주야, 나중에 할매는 죽으면 나비가 되고 싶은기라”

“네? 나비요?”

“그래, 나비 말이다. 연주가 곱게 그린 이 나비처럼 할매도 고운 나비가 되고 싶은기라”

“할머니... 왜 나비가 되고 싶어요?”

“나비처럼 고운 빛깔로 세상을 이리저리 마음껏 날아다니면 울매나 좋겠노, 할매가 다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답답한기라, 그래서 할매는 나비가 되고 싶은기다”

그때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난 집으로 돌아와 학교와 학원 생활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 흰색 봉투 하나를 주셨다. 그것은 할머니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편지였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표가 붙여져서 내 이름으로 우리 집에 도착한 내 인생의 첫 편지였다. 난 우표도 신기했고 할머니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니 신기했었다.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길지 않은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머니께 감사

인사의 전화를 드렸었다. 또 할머니께서 놀라시게 답장을 보내드리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었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내려가서 얼굴 봐야지 하면서 답장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 기일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고모께 듣고 펄펄 울었다. 사실, 할머니께서는 글자를 모른 채 수십 년을 사시다가, 아픈 다리를 끌고 노인학교를 다니시면서 한글을 배우셨다고 하신다. 또, 한글을 열심히 읽고 쓰기를 연습하셔서 쓰신 첫 글, 편지가 나에게 보내신 그 편지였다는 것이다. 하루는 고모가 할머니 집에 오니 원가를 열심히 적고 구기고를 반복하고 계셨다고 하신다. 뭘 하시냐고 하셔도 몰라도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나중에 살짝 고모가 보니 바로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고 하신다.

난 그렇게 소중한 편지를 받아놓고도 답장을 보내드리지 못했던 것이다. 어쩔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매일매일 답장을 기다리셨던 것은 아닌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하다. 편리함에 젖어 할머니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 지금도 파란색 할머니 대문 옆쪽 우유 주머니와 함께 달려 있는 초록색 우편함 주머니가 보인다. 그 우편함을 열어보니 아직도 할머니 성함으로 온 봉투 몇 개와 엽서가 들어있다. ‘할머니 성함 3글자’를 보자 주책 같은 눈물은 또 실 새 없이 흐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 다짐에 다짐을 했다.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화려한 나비를 그려 넣은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만들어서 할머니께 보내지 못한 2023년 버전의 답장을 적을 것이다. 또 내 손으로 이쁜 우표를 붙여서 할머니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할머니 집에 가서 그 초록색 우편함에 나보다 미리 도착한 편지를 내 손으로 꺼내 할머니 산소에 가서 읽어드리겠다고 말이다.

지금 나는 그때의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도 그때의 할머니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할머니께서는 아주 곱고 고운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아주 자유롭게 여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다. 늘 늦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 그 받은 사랑의 깊이를 편지 한 통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가슴이 잊지 못한 사랑을 할머니께 가슴으로 전해드리려고 한다. 올 추석이 기다려지고 기대된다.

“우체부 아저씨 저희 할머니 집은 경주시 외동읍 00리 이고요, 할머니 성함은 김금연입니다”



마음을 전하다, 우체국 혹은 우정국

중고등부

박서연



우체국, 시민들의 우편물을 접수해 전국으로 배달하는 기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네 우체국이 있지만, 나는 살면서 우체국에 가볼 일이 극히 드물었다.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는 길에 가끔 스쳐 지나가는 곳, 동네 어른들이 뭐가 들었는지 모를 커다란 박스를 포장하고 앉아 기다리는 곳, 우체국은 나에게 딱 그 정도의 의미였다. 그리고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가볼 일이 없을 거라 여겼었다.

2021년 여름, 중학생이 되고 처음 아이돌을 ‘덕질’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인 7월 초, 나는 한 아이돌 그룹에 단단히 빠지게 되었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무대 영상이 마법처럼 나를 이끌었고, 홀린 듯이 손가락을 갖다 댄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위 말해 ‘입덕’이란 걸 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생애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 여겼던 한 남자 아이돌에게.

처음에는 사진과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다 먼저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친구의 권유로 그 아이돌의 앨범을 구매하고, 각종 굿즈와 포토카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것들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었다. 웹사이트의 바다를 헤엄치던 나는, 마침내 SNS에서 갖고 싶던 포토카드의 판매자를 찾아 연락을 넣을 수 있었다. 모든 게 낯설었다. 간질거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묻고, 배송받을 주소를 차근차근 알려드렸다.

우체국 송장 번호를 찍은 사진을 건네받고, 언제쯤 도착할까 애타는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마침내 문자를 받고 우편함을 열어본 어느 날, 집에 돌아와 포장을 뜯고 눈부신 얼굴이 담긴 포토카드의 실물에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저 포토카드만 달랑 온 것이 아니라, 친절한 판매자분은 손수

쓴 짙막한 편지와 자잘한 스티커들도 함께 보내주셨다. 얼굴도, 이름도, 사는 지역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나는 우체국에 갔다. 간절히 갖고 싶었던 굿즈를 배송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 굿즈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 후 나름 거래에 능숙해진 나는 직접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처음 받았던 따뜻한 선물을 기억하며, 나 또한 굿즈를 포장할 때마다 덤을 함께 넣었다. 배송받은 누군가가 나처럼 기뻐하기를 바라며, 우체국에 가 번호표를 뽑고, 직원분께 우편물을 건네 드렸다. 어떨 땐 작은 편지 봉투였고, 들고 옮기기에다 벽찬 큰 박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항상 같았다. 좋아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따뜻함을 배달하는 건 늘 우체국이었다.

우체국의 옛날 이름은 ‘우정국’이다. 한자로는 郵政局, 우편과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아본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우정국의 ‘정’에는情的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작용과 사랑이라는 뜻의情 말이다. 자식에게 맛있는 반찬을 보내려는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연인의 마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려는 나와 같은 이들의 마음, 이 수많은 사랑이 듬뿍 묻은 우편물을 전달하는 곳. 결국 그곳을 지금은 우체국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여름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 지금의 나는 그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우체국에 갈 일도 사라졌고,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포장할 일도, 우편함을 열어볼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에 빠지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을 배송하고, 배송받은 추억들은 선명히 남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미 소리와 함께 여름 내음이 흩어지는 팔월의 중반에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기다린다.

그렇게, 또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 우체국이 있는 한.

사라지는 우체통



중고등부

김유빈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다. 핸드폰 안에는 흰 종이가 붙은 빨간색 우체통이 담겼다. 엄마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은 후에도 우체통 앞을 쉬이 지나치지 못했다. 엄마의 팔을 잡아끌었지만, 엄마는 너무 아쉽다는 소리를 반복하며 겨우 걸음을 옮겼다.

“저 우체통이 사라진다니… 생각도 못했어. 너무 슬프구나.”

우체통 앞에 붙은 하얀 종이에는 ‘우체통 철거 안내’라고 쓰여 있었다. 빨강고 통통하게 생긴 우리 동네 05번 우체통은 2023년 9월 1일자로 철거되는 것이다.

“왜요? 저 우체통에 특별한 기억이라도 있어요?”

“엄마가 살던 집은 이 우체통보다는 우체국이 더 가까워서,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자주 넣었어. 중고생 시절에는,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쓴 편지를 보냈었지. 대학생이 되고, 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대학에서 친해진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 낭만적인 시를 적어 보내거나, 서로의 꿈을 편지지 안에 펼쳤었지… 한두 번 이 우체통을 이용하기도 했어. 그때 편지로 수다를 떨며 단짝이 된 그 친구와의 인연은 벌써 30년이나 되었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편지는 몇 천 통쯤이 될지도 몰라. 유치원 아이들은 자주 편지를 써주거든.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 때면 선생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유치원에 오는 게 재미있어요, 하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건,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선생님이로서 따뜻한 말로, 포용으로, 그리고 답장으로 편지를 받는 감사함을 표현했단다. 너와 네 동생은 어릴 때, 내가 힘들 때마다 편지를 써줬어. 그게 큰 힘이 됐지. ‘엄마는 보물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고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던 편지는 아직도 거울 앞에 붙여 두고 매일 보며 웃는단다.”

엄마의 삶은 결코 편지와 우체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체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을 나누는 기쁨으로 엮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엄마가 우체통이 사라진다는 안내문을 보고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얼마 전에 놀랐던 경험이 있다. 내 동생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친구에게 편지가 가지 않았다. 알고 보니 동생은 청구서나 홍보물을 수신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동생에게 편지는 빨간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알려 주며, 요즘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송신 지식이 없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고 말았다. 어쩌면 편지를 써본 경험조차 없는 아이들도 있겠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니, 나는 그게 못내 아쉽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현재의 기분과 긴급한 연락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과연 그게 다일까? 엄마가 편지로 주고받았던 추억과 낭만, 감사, 사랑, 행복,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SNS로 전하는 짤막하고 얇은 생각이나 기분이 아닌, 깊고 진실된 마음을 전하던 시대는 어디에 있는가. 어렵פות이, 편지로 채워졌던 엄마의 인생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우리 마을 05번 우체통은 약 40년 동안 편지 몇 통을 품고, 우편배달부 몇 명의 손을 거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따뜻한 영향을 끼쳤을까.

나는 그 우체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우체통과의 마지막 기억을 남기기로 했다. 우체통이 철거되는 9월 1일, 바로 그 날짜로 제천에 전근을 가시는 부담임 선생님을 향한 편지를 썼다. 엄마는 편지를 쓸 때, 수줍어서 못 다한 말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본다고 한다. 나도 엄마처럼, 속스러워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았다. 8월 31일, 이 편지를 사라지는 우체통에 넣으려고 한다. 그 우체통이 전하는 마지막 편지가 사라지지 않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023 우체국 문화전

그짓기 대회

• 우수상 •





| 초등 저학년 |

김민주	허유주
신 울	노윤성
이채원	이서연
김서현	박선우
이지울	고금비

| 초등 고학년 |

고마운	정원혁
안시운	류하준
임해수	김시은
이정빈	민유빈
김나현	이찬희

| 중·고등부 |

신정민	오재후
류원엽	이윤희
조민선	임하은
이지운	정선용
조안유	이민지

내게 쓴 편지



초등 저학년

김민주



살랑 불어오는 꽃바람에

찾아간 우체국

1년 뒤 나에게

쓴 편지

벗꽃이 활짝 핀 봄,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가을,

눈 내리는 겨울이 지나

내게 오고 있는

편지도

나만큼 설레일까



편지



초등 저학년

신 울



편지는
주고받을 때
가장
기쁘다.

편지를 쓰고 난 후
기다려진다.

편지를 쓰면
받는 사람의 마음도
엷보인다.

편지를 쓴 후
우체통으로 쏙
들어간 후
나는 벌써
답장을 기다린다.





나도 우체통처럼

초등 저학년

이채원



초등학생인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식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특히, 아빠. 유치원 때는 안 그랬다고 한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편식을 안 하면 건강에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우체통은 무엇이든 잘 먹으니 정말 건강할 것 같았다.

나는 무엇이든 다 먹고 건강하고 싶다. 우체통이 되려면 편식을 안 해야 한다. 나도 우체통이 되어서 골고루 먹고 싶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 편지들을 모두 먹고 싶다.

아빠는 우체통은 편지를 골고루 먹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다. 친구가 준 쪽지에 나도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우체통이 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내가 편식을 안 하면 내 몸도 기분이 좋을까?

우체통은 건강할 것 같다. 좋겠다. 우체통이 건강하다면 나도 골고루 먹을 거다. 먹기 싫을 때마다 우체통을 떠올려야겠다. 나도 골고루 먹고 우리 동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싶다. 많은 편지를 동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싶다. 편지를 넣으면 기분이 어떨까? 여름에는 우체통이 시원해지게 얼음 편지를 넣어줘야겠다.

편식 하지만, 우체통아!

우체국 산타 아저씨



초등 저학년

김서현



우리 집엔 택배가 자주 온다. 집 앞에 서 있는 택배차를 보면 나는 그게 내 물건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 물건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엄마가 선물을 주실 때마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주셨기 때문이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들고 오신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 택배 아저씨를 우체국 산타 아저씨라고 부른다. 산타 할아버지는 일 년에 한 번만 오지만 우체국 산타 아저씨는 매일 매일 올 수 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우체국 산타 아저씨가 훨씬 좋다. 지난번엔 내가 좋아하는 라비린스 보드 게임을 배달해 주셨다. 우체국 산타 아저씨가 택배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면 내 심장이 쿵쿵쿵 두근두근 거린다. 화면에 보이는 아저씨 얼굴도 반갑다. 아저씨가 땡동~ 초인종을 누르면 나는 신발도 안 신고 현관을 뛰어나간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의 산타 아저씨였다. 내 선물이 아니라 엄마의 커피가 배달 온 것이다. 나도 모르게 실망해서 입이 튀어나왔다. 나는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입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엄마랑 택배 아저씨가 그걸 보고 막 웃으셨다. 다음엔 꼭 내 선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가셨다. 엄마가 현관문을 닫으면서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다. 날씨가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 얼마 전 태풍 카눈이 온 날도 택배 아저씨는 힘든 것도 참고 우리에게 택배를 가져다주셨다고 했다. 나였으면 힘들어서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저씨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고 일하신다. 나는 아저씨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시면 아저씨한테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것이다. 아저씨가 아프지 않아서 우리 집에 매일 매일 택배를 가져다주시면 정말 좋겠다.



편지의 여행

초등 저학년

이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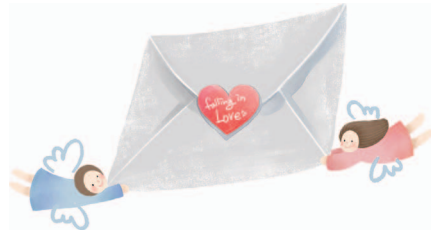


나는 지울이의 손 편지입니다.
지울이 손에 잡혀 우체국으로 왔어요.
내 얼굴에 우표가 붙었어요.
나는 우체통으로 쓱 들어갔어요.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깜깜한 우체통 안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조잘조잘 수다 떨고 있는데
누가 나와 친구를 꺼내 갔어요.

친구와 나는 갈 곳이 달라
금방 헤어졌어요.
다행히 같은 지역으로 가는
다른 친구를 만났지요.
우리는 한꺼번에 뭉쳐져 차에 실렸어요.

한참을 달려와 내린 곳에서
나는 뭉치에서 떨어져
집배원 아저씨 손에 닿았어요.
여러 사람이 나를 들어가다 놓았다가
나는 지울이 친구에게 무사히 배달되었어요.
모두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예요.





가장 소중한 선물

초등 저학년

허유주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처음 엄마에게 편지를 준 날을 기억한다고요.

하얀 스케치북 주주 찢어

삐뚤삐뚤 그린 다섯 글자

엄마 사랑해

우리 아가에게 처음 받은 편지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글자를 아주 많이 알아요.

오십 글자, 오백 글자도 쓸 수 있어요.

엄마에게 소중한 선물이 내가 써 준 편지라면

나는 계속 엄마에게 편지할래요.

내가 아는 글자 수만큼요.

내일은 우체국에 갈래요.

우체통이 빨강인 것은 편지를 보낼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때문일 거예요.

내 편지를 열어 볼 때 엄마마음도 우체통처럼 빨강일까요?

또박또박 우체부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



초등 저학년

노윤성



띠딩띠딩

우체부 아저씨의 자전거 소리

부릉부릉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

뽕뽕뽕뽕

우체부 아저씨의 자동차 소리

난,

또박또박 우체부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가

젤루 좋다.

나에게 가장 먼저 오시는 소리 같아서다.

또잇또잇

우체부 아저씨 이마에서

땀방울이 쏟아진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땀방울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바쁜 발걸음으로

우리 아파트를 지나가신다.

우체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행복을 전해주는 편지



초등 저학년

이서연



사각사각 글씨 쓰는 소리
할머니 생각에 내 볼은 발그레

통통통 우체국에 가는 발소리
할머니 생각에 내 마음은 두근두근

짜깁깁 편지 가기만 바라는 시계 소리
편지 소식이 궁금해서 내 머리는 핑

띠링띠링 드디어 할머니 전화벨 소리
할머니 웃음에 내 입도 헤벌쭙

하하 호호 웃음을 전해주는 편지
우리 가족 행복을 전해주는 우체국

우체국은 택배맛집



초등 저학년

박선우



우리 할아버지의 택배 사랑은 남다르다. 오늘도 현관 앞에 할아버지의 택배가 와 있다. 박스를 열어보니 할아버지께서 농사지은 양파랑 고추가 한가득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의령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신다. 쌀, 고구마, 감자, 양파, 고추, 옥수수며 사계절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바쁘게 농사를 지으신다. 농사를 짓고 수확하면 우리 집에도 보내주시고 부산에 고모할머니께도 보내 주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체국에 자주 가신다. 이번 여름방학에 할아버지 택배에 갔다. 할아버지 집은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매미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강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다. 오자마자 기대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이장님이다. “할아버지 이장님은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 “학교에 반장같은 거지. 이 할비가 바쁘게 움직여야 빨리빨리 이집 저집 일을 할 수 있단다. 촌에는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할비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슈퍼맨이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구르마를 끌고 아랫마을 창녕댁, 옆집에 밀양댁, 마을회관에 할머니들까지 택배 보낼거를 가득 싣고 수첩에 주소까지 적고 할아버지차에 다시 싣고 의령 시내에 우체국으로 향했다. 이 더운 여름에 할아버지는 왜 우리 택배도 아니고 다른 집의 택배까지 다 싣고 무겁게 고생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우체국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직원분한테 얘기하고 카트기에 택배를 가득 싣고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를 보자 택배 담당하는 직원 아저씨께서 “오늘도 이리 많습니까? 낙서동네는 이장님 안 계시면 큰일 나겠어에...” 하셨다. 택배용지에 주소를 적고 내용물에 참기름, 쌀, 참깨, 꿀, 참 많기도 많았다. 택배를 다 접수하고 할아버지께서 화장실 간다하셔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방금 전 택배 접수해 주신 우체국 직원분께서 “할아버지 참 대단하제? 할아버지 매일 같이 우체국 오셔서 동네 분들 택배 보내 주고, 저렇게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단다. 저렇게 좋은 분이 할아버지라서 참 좋겠다.” 하셨다. 웬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다. 할아버지랑 집에 가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택배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매일 이렇게 무거운 택배를 동네 사람들 것까지 우체국에 옮겨요?” 여쭙보니 “허허허 할아버지 동네에 이 할비가 제일 젊은 청년이다. 동네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직 이 할비는 이리 건강하니 할비가 이리하면 손자며 손녀며 맛있는 과일도 곡식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노. 우리 강아지한테도 맛있는거 보내줄 수 있고, 할비 젊었을 때 집배원 할 때도 생각나서 생활의 활력을 느낀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는 됐지만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 지실까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동네 택배를 우체국에 전달 할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할아버지의 택배를 받고 싶다. 할아버지께서 전달 하는 우체국 택배 속에는 할아버지의 옛 추억이 가득 담겨 있다. 내일도 할아버지는 택배를 가득 싣고 우체국 택배 맛집으로 향하실 것이다.



우체국의 대한 나의 생각



초등 저학년

고금비



안녕하세요, 우체부 아저씨. 저는 영종초등학교 1학년 고금비입니다.

저는 우체국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체통이라고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달 이야기가 있는 알림이 있을 때 파일을 우체통이라고 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달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파일을 우체통이라고 학교에서 부른답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엄마는 느린우체통이라는 곳에 편지를 넣으면 1년 뒤 도착하는 우체통이 있다고 엄마가 사진을 보여 주셨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1년간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 같은 통 같아요.

편지 안에는 저를 기다린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가지신 엄마의 소원을 이뤄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체국은 편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을 때 큰 봉투도 넣어주시는걸 봤고요, 엄마가 인터넷으로 맛있는 간식을 살 때도 우체부 기사님이 보내주시는걸 봤습니다.

엄마가 청약이 돼서 인지세 내려 가실 때도 저를 데려가셨고요, 편지업무뿐 아니라 금융, 공적인 일에도 우체국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나중에는 우체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는 편지 업무로 우체국이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1년 뒤가 아닌 10년 뒤 느린우체통을 만들어 저도 엄마처럼 추억과 소망을 약속하고 기도할 수 있게 10년 뒤 우체통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저를 기억해 주세요.

2023년 8월 13일

편지는 사랑을 싣고



초등 고학년

고마운



제 꿈은 많습니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집배원’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학교에서 어버이날 때 쓰는 편지, 엄마 아빠 생신 때 쓰는 편지 말고는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가 봐요. 엄마는 어렸을 적에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서 주고받고 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이 콩닥콩닥 즐거웠다고요. 아마 엄마의 연애편지였을까요? 아빠를 만나기 전 학생 때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한테는 비밀 이야기겠조?

어느 날 엄마가 편지와 편지 봉투 그리고 귀여운 뽀로로 우표를 주셨습니다. 지금 편지 쓰기를 하자며 제가 편지 쓰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편지를 쓸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서로 등을 돌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엄마를 놀래 드리고 싶어서 아빠에게 쓰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말을 해주지 않겠다고며 끝까지 누구에게 쓰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죠. 편지를 편지 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 편지 봉투를 닫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우리는 우체통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빨간 우체통이 엄청 반가웠습니다. 우체통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엄마가 언니한테 편지 썼으면 어찌지? 내가 받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몇 날 며칠 지나고 우편함을 갔더니 과학잡지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받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꼬마 고마운’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아! 엄마도 저한테 썼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엄마가 문자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편지로 엄마가 사랑한다고 글을 써서

주니까 몇 배나 더 엄마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 편지를 써서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만큼 보내는 저도 행복했던 것처럼 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대신 가져다주시는 집배원 아저씨들도 힘이 넘칠 것 같아요.



느린 우체통아, 고마워!



초등 고학년

안 시 윤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참 많이 울었던 날로 기억한다. 그때 막 9살이 된 나는 선생님이 엄마가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한국국제학교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 아빠는 한국에 직장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이별을 해야 했다.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가던 날, 아빠가 자동차로 우리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었다. 그 차 안에서 나는 별별 생각을 다 했다.

‘평소에도 아빠는 엄마 없으면 밥도 잘 안 먹는데, 우리 없이 괜찮을까?’

‘베트남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겨서 한국에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쓸쓸히 창만 바라보는데 아빠가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다. 하도 아쉽고 슬퍼서인지 그렇게 좋아하던 어묵 우동도, 떡볶이도 별 맛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슬슬 공항으로 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휴게소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던 느린 우체통을 발견했다. 1년 후에 배달해 주는 우체통이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마음이 통해 다 같이 편지를 쓰자고 했다. 나는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1년 후의 아빠와 나를 생각했다. 편지를 조금 쓰는데 눈물이 나왔다. 꺾꺾 참으면서 겨우겨우 편지를 완성했다.

‘아빠, 우리는 지금 헤어지러 가는 중이에요. 1년 후에 우리는 만났나요? 아빠는 밥 잘 챙겨 먹고 있나요? 지금은 아빠랑 헤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많이 컸나요? 아빠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 이 편지가 아빠에게 도착할 때쯤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나는 편지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렇게 정성 들여서 쓴 것은 처음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는 편지지도 정성스럽게 꾸몄다.

어느덧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워 왔다. 서둘러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10초간 안긴 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아빠는 우리가 입국심사장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고 있었다.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빠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꼭 참았다. 아빠도 억지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창문 밖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거기에 아빠가 서 있을 것만 같았다.

하노이에서의 생활이 많이 적응되던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와는 달리 영상통화가 아니라 그냥 음성통화였다.

“시윤아! 오늘 느린 우체통 편지가 왔어. 그때 시윤이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진다. 끝까지 아빠를 걱정해 주는 마음이 정말 대견했어. 네가 편지에 쓴 대로 우리 1년만 더 버티자. 아빠는 시윤이가 정말 고맙고 대견해. 그리고 참 멋있어. 사랑해!”

아빠는 울고 있었다. 아마 그래서 영상통화 대신 일반전화를 한 거 같았다. 아빠가 보고 싶어졌다. 영상 말고 실제로 보고 싶었다. 내 마음을 전해준 느린 우체통이 참 고마웠다.

이후로 일 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만나지 못하다가 내가 막 4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라 입국 심사가 복잡했다. 입국장을 겨우겨우 빠져나오던 그때,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막 흘러나왔다. 이제는 마음껏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헤어져서 잘 지냈던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쓴 느린 우체통 편지 덕분이다. 그것은 편지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가끔은 힘들었던 우리를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느린 우체통아, 정말 고마워!”



해수에게

초등 고학년

임 해 수



안녕 해수야! 해수야 네가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꼭 6개월 전 포항에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놀러 왔던 날 기억해? 포항 근대화 거리에서 해수 네가 6개월 뒤의 너에게 쓴 편지가 나와!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너를 만나기를 동동거리며 기대했어. 네가 쓴 편지의 내용만큼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나는 지금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너와 헤어진 지 딱 6개월 되던 날 나와 같이 지내던 친구들과 우르르 포항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표로 몸단장도 하고 도장도 팡 찍었어. 포항 우체국에서는 말이야 전국으로 가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

엄마 마음이 담긴 반찬들 빼곡히 담아 넣은 소포 언니도 있었고, 대학교 한 학기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더 많아진 짐을 차곡차곡 담아 넣은 소포 친구도 있었지. 얼마 뒤면 결혼할 예정인 커플의 설렘을 가득 담은 청첩장 오빠도 있었어. 거기 있는 소포들은 대부분 대전으로, 편지들은 계룡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냐고? 계룡이야! 아마 내일이나 모레 너에게 가겠지?

세종에 어떤 연구원으로 가는 국제우편 아저씨는 거기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거라 하더라. 계룡은 전국에 많은 편지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라고 했어. 다음 날 바로 가야 하는 편지들은 다른 곳에서 급하게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야. 난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가고 싶지만 지난 6개월을 기다렸으니 하루 이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너에게 가려 해!

그거 아니 해수야? 여기서 만난 편지들은 이름이 참 예쁜 친구들이 많아. 달빛로, 누리로, 벚꽃로, 열린바다로, 호수로... 이렇게! 정말 예쁘지? 네가 전국에 이런 예쁜 것들을

다 보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내 몸에 적힌 '모암로'가 제일 기대돼.
네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몸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너의 하루하루가 예쁘게
빛나기를 바라. 해수야, 우리 곧 만나자!

해수의 편지가



나의 공부방을 물고 온 제비



초등 고학년

이정빈



‘부시력 부시력’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에 할머니는 옷을 챙겨 입고 일을 하러 나가신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되어 다른 일을 준비 중이라 나와 동생은 시골 할머니 댁에 와서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 집은 옛날 집이라 좁고 불편하지만 찾기는 아주 쉽다.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어서 우체국 앞집이라고 하면 다 안다. 우체국은 시원하고 앉을 때가 많아 동생을 데리고 자주 가서 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우체국에 자주 가지 않아 우체국은 편지나 물건 보내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금이나 보험 같은 은행 일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셔서 아랫동네까지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리어카에 빈 박스가 한가득 실려있었다. “할머니 힘드신데 또 갔다 오셨어요? 이젠 그만 하세요.”하면 “아니야! 이 통장을 보면 힘이 난단다.” 하시면서 우체국 통장을 보여주셨다. 매일 종이나 빈 박스를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주고받은 돈을 저금하신 것이다. 철없는 동생은 할머니께 맛있는 것 사달라고 졸랐지만 할머니는 우리들 간식을 받어서 나는 옥수수나 감자를 삶아 주시고 아끼고 절약하셨다. ‘도대체 저 돈으로 뭘 하려고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시지?’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를 도와 박스 줍는 일을 했다. 박스를 팔고 받은 돈을 저금하러 우체국에 갈 때 좋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가게를 열고 정리가 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가 살던 집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내 방도 생겨서 너무 좋았다. 그동안 좁은 방에서 동생이 탄 보행기가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어서 나의 공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나의 방이 생기다니!

너무 기뻐서 부모님께 고맙다고 했더니 이걸 할머니 덕분이니 할머니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우체국에 저금한 돈을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셨다는 것이다. '아! 그랬구나!' 할머니께서 고추 농사지어서 번 돈도 과자 안 사주시고 전부 다 우체국에 예금하셔서 그때 많이 속상했었는데... 할머니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떼쓰며 마음 아프게 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듯이 우체국 예금은 나에게 공부방을 물고 와서 선물해 주었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었다. 우체국과 함께 앞으로도 더 기쁜 일이 많이 생기도록 나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우체국에 저금할 것이다. 오늘도 용돈을 아껴 저금하러 우체국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제비의 날개처럼 가볍고 기분은 날아갈 것 같다.



도서관 옆 우체국



초등 고학년

김 나 현



나는 양천도서관에 1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책을 읽다 오고는 한다. 창밖 풍경이 보이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창밖도 보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는다. 그러다 보면 그 옆에 항상 도서관의 친구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 바로 양천우체국이다.

예전에 책에 집중이 안 될 때 나는 우체국 쪽 창가를 보곤 했었다. 조용한 도서관에 비해 등성등성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상기된 표정, 몸짓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상상도 해보고, '나도 우체국에 가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았다. 그런데 요즘 공사가 끝난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우체국은 텅 비어있다. 그래서 좀 쓸쓸한 기분도 들고, 혹시 우체국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도서관과 우체국은 묘하게 닮은 점이 있는데, 둘 다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 옆에 우체국이 있는 우리 동네가 난 참 마음에 든다. 도서관과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면 좋겠다.

손 편지에 대한 추억 하나가 문득 떠오른다. 내가 1학년 때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던 친한 친구가 캐나다로 이사를 가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무척 보고 싶기도 했다. 물론, 간간이 페이스톡을 하며 얼굴을 보곤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사이가 점점 서먹해지고 있던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집으로 카드 하나가 도착했다. '엄마나 아빠 카드 명세서겠지...' 싶었다. 그렇게 그냥 무심코 봉투를 빼낸 순간, 익숙한 이름, 캐나다로 가서 한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친구의 이름에 눈에 들어왔다. 처음 든 감정은 반가움이었다. 갑자기 찾아온 편지가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서둘러 집으로 가서 카드를 열어보니, 친구의 손 글씨가 빼곡했다. 빼뿔빼뿔한 손 글씨였지만, 정성스레 꼭꼭 눌러 써서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는게 느껴졌다.

문득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또 미루던 내가 부끄러웠다. 그런 나에게 먼저 선택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준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다. 그 후로도 가끔 꺼내어 카드를 몇 번이고 계속 읽었다. 그때마다 예전 친구와의 소소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나도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답장을 보냈다. 그 친구는 아직도 그걸 간직하고 있을까? 요즘에도 나는 가끔 친구의 따뜻한 카드를 보며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그 카드는 어떨 때는 웃음을, 어떨 때는 몽클함을 준다.

이렇게 몇 년 전 친구에게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에 가고 나서 그 뒤로는 도서관에서 물끄러미 보기만 할 뿐, 다시 갈 기회는 없었다. 전에 <키다리 아저씨>를 읽을 때 잠깐 편지와 우체국이 떠올랐지만 곧 잊히고 말았다. 오늘에서야 그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곧 울긋불긋 예쁜 가을이 온다. 특히 양천우체국은 주변에 나무가 많아 가을에 알록달록한 나뭇잎들이 너무 예쁘다. 요즘 점점 사라져가는 우체국의 붉은색도 덩달아 떠오른다. 물론 나는 잘 모르는 시절이지만, 요즘 90년대의 정겨움을 다루는 드라마가 곧잘 나오는 만큼, 어머니 엄마 또래의 어른들은 그때의 순수했던 감성을 그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통신이 느린 만큼 장점도 있었던 것 같다. ‘누가 나에게 카드를 보낼까’, ‘크리스마스 때 몇 명의 카드가 나에게 올까’하는 기다림... 그 정다운 마음이 그리п기도 할 것 같다.

언젠가 나도 한 번 고운 단풍이 핀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의 단골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봐야겠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내 나이와 같은 열한 살의 엄마한테, 감성을 담아 예쁜 편지지에 한줄 한줄 적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너는 정말 멋진 어른으로 자랄 거고 너를 꼭 닮은 예쁜 딸을 낳을 거라고... (나이가 같으니까 반말이 허용되겠지?^^) 가을의 애뜻함, 따스함도 꺾꺾 눌러 담을 것이다. 그것이 아날로그의 멋이니까.



발 달린 편지

초등 고학년

정원혁



공간도 시간도 멀어진 낯선 땅
미국에서 나 홀로 그리움에 펜을 든다.

엄마를 향해 꼭꼭 눌러 쓴 마음은
내가 떠나올 때처럼 비행기에 오른다.

내 마음이 길을 잃을까
마중 나온 친절한 우체부 아저씨

불별더위에도 간절한 마음 전하고자
달리고 또 달려 그리운 집으로 향한다.

땡땡! 뽀이 울리자 반갑게 뛰어나온 엄마를 향해
편지도 한달음에 달려가 안긴다.
아무래도 편지에 발이 달렸나 보다.

우체부 아저씨의 땀방울 아래로
흐뭇한 미소가 스친다.

하얀 우체통 그리고 하늘 우체통



초등 고학년

류 하 준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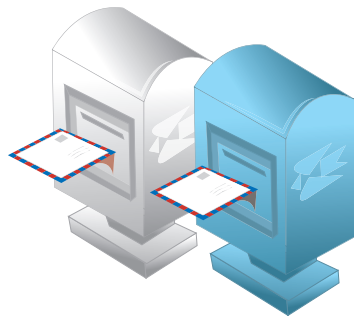
나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고 있으니 자꾸만 커지는 것 같다. 원래는 빨간 우체통이 있고 또 1년 뒤에 전해지는 노란 우체통도 있다. 그런데 나는 하얀 우체통이 있었으면 한다. 그 우체통은 미움을 없애주는 우체통이다.

나는 3학년 때 친했었던 친구가 4학년 때부터 계속 나를 때리거나 나쁜 말을 써서 절교를 했던 적이 있다. 말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이미 그 친구는 내가 좋아했던 3학년 때의 모습과 너무 멀어져서 부당스러웠다. 아마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만약 하얀 우체통이 있다면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하얀 우체통 안에 미움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미움이 하얗게 사라지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러면 우체통의 인기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워하는 감정의 색깔은 빨간색이나 검정색이지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하얀색처럼 깨끗해지라는 뜻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움으로 인해 서로 부담을 느낄 텐데 이 하얀 우체통이 곧 그들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다.

슬픈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픔 때문에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늘 우체통도 생기면 좋겠다. 20년이나 30년 정도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하늘 우체통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슬픔을 치유하고 싶다. 그리고 나와 절교한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는데 나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하늘 우체통이 생기면 좋겠다.

3학년 때 읽었던 책인 ‘아빠 보내기’에서는 민서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민서가 슬픔을 이겨내는 내용이 나온다. 그때 민서에게 하늘 우체통이 있었다라면 민서의 슬픔을 달랠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늘 우체통이 있다면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한 분들에게도 나는 편지를 쓸 것이다. 지금 전쟁 때문에 안타깝게 죽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싶다. 하늘 우체통이 있다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전쟁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것 같다. 하늘 우체통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줄 것이다.

빨간 우체통과 노란 우체통은 이미 있지만 빨강고 노랑고 하얀색이면서 푸른 우체통까지 있다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미움과 슬픔이 저절로 회복되고 풀어질 것이다. 나쁜 것을 사라지게 하고 좋은 것들만 이어주는 4색 우체통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게 될 것이다.



조선 시대의 우체부



초등 고학년

김시은



나는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우체국의 상징 빨간 버선과 편지가 든 괴나리봇짐을 댔다. 괴나리봇짐에 손을 넣어 보드라운 촉감의 편지를 하나 꺼냈다. 편지의 뒷장에 ‘김주만 훈장님’이라는 글씨와 ‘강세지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있었다.

나는 빠르게 장으로 향했다. 장에는 나무나 돌 등을 파는 농민들과 장을 보러 나온 부유한 양반들이 북적였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가까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강세지네 집 앞에서 소리쳤다.

“우체부요! 김주만 훈장님께서 강세지에게 보냈건만, 나와보시오!”

난 우체부가 싫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다 우체국에서 잠드는 우체부의 삶은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난 가난하니 그만두면 살아가기 어려워서이다. 오늘도 난 쨍한 하늘과 그에 어울리는 진한 나뭇잎에 위로받는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잠시만요. 어머니께서 아저씨 드리라고 준비하신 주먹밥인데... 여기요!”

“고맙다. 자, 여기 편지. 그러고 보니, 어제는 밥도 못 먹었구나. 정신이 없었어.”

“아저씨, 힘내세요.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것이라 죄송하네요.”

“되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발목을 잡는 하나의 이유기도 하지. 그렇다고 미운 건 아니다. 이만 간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다시 장으로 향했다. 강세지 녀석, 오늘따라 정을 주는 모습이 귀여웠다.

“이번엔 재표네구나. 어! 거기 재표야! 이리 와봐라!”

“어, 예 아저씨! 제게 편지 왔나요?!”

“녀석, 그래, 왔다, 여기.”

“와아아 감사합니다! 헤헤, 아저씨, 옛 하나 드세요! 한 조각 남았는데.”

“그래? 고맙다”

나는 옛 한 조각을 받아 들었다. 하여간 귀엽고 정 붙는 녀석이다. 녀석이 안녕히 가시라며 허리 숙여 인사하자 나는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며 알았다고 답했다. 나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이번 편지는 정재주 영감님 덕이다. 나는 발걸음을 옮긴 뒤로 한 시진 정도 걸어 장에서 멀리 떨어진 영감님 댁으로 향했다.

“영감님! 저 우체부입니다!”

“아이고, 들어오게.”

나는 영감님이 문을 여신 틈으로 집 마당에 들어가 말했다.

“김채한 영감님께서 보내셨어요!”

“으잉? 초한 영감?”

“김! 채! 한! 영! 감! 님! 이요.”

“어어, 김채한. 그러, 고맙네. 밥 한 손갈 들고 가게.”

영감님은 내 편지를 받으시곤 나를 집 안으로 들이셨다. 집 안엔 쌀밥과 반찬인 김치와 시금치나물이 있는 상이 있었다. 영감님은 급하게 밥 한 그릇을 가져오셨고, 나는 급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왔다. 나는 영감님 밥에 내 밥을 덜어드리곤 영감이 숟가락을 드실 때를 기다렸다.

“고맙네.”

영감님께선 밥 한 손갈을 드시곤 내 밥 위에 김치를 올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우체부로 일해주어 고맙네. 덕분에 이리 건장한 우체부 청년 이웃을 만들고.”

“그저 이런 영감님이셔서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 참, 내가 이래서 우체부 일을 못 그만둔다. 나를 웃으며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 우체부를 그만둘 수가 없기도 하다. 이웃 간의 정이 무어라고. 참 신기하다.

행복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전도사, 우체국



초등 고학년

민유빈



퇴근 후, 현관을 들어오시며 언제나처럼 “유빈아~!!”하고 부르시는 아빠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유난히 찌렁찌렁했다. 아빠는 나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으셨다.

“우리 유빈이가 직접 이걸 썼니?”

바스락거리는 새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나에게 내미시며 흐뭇하게 웃으셨다.

사실, 아빠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의 시작은 이랬다.

며칠 전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방학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억이 될 만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엄마, 방학인데 맨날 똑같이 숙제하고 학원가고 또 그래야 돼?”

내가 입을 꼭 내밀면서 불평했더니 엄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음... 그럼 우리 이번엔 안 해 본 일 한 번 해볼까? 가족에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직접 우편으로 받아보게 하는 거 어때?”

가족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진실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
어버이날에 쓰는 편지나 엽서가 전부였고, 그때마다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의무감에 칸을
채워야 하는 부담감이 더 컸었다.

‘혹시, 선생님이 보시려나?’

이런 생각에 훌륭한 효과 같은 표현만을 골라 썼다. 이번 기회에 솔직한 마음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쓰고, 직접 부친 편지가 가족의 손에 전달되는 경험을 해 보기로 하였다.

엄마는 기말고사 때문에 속상한 형에게 응원의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나는 아빠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아빠가 하는 연구에 대해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을 썼다. 난생 처음으로 내 솔직한 마음을 쓰려니 좀 막막하고 쑥스러웠지만, 짝짝 편지를 받을 아빠의 얼굴을 생각하니, 따뜻하고 쓰면 쓸수록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우리 가족은 우체국과 인연이 깊다. 부모님께서 결혼하기 전, 아빠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셨다. 회사는 경기도 용인. 기숙사는 간식거리를 사러 나오기가 꽤 번거로웠기 때문에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서 늘 우체국 소포로 부쳤다고 한다. 아빠는 간식 Box가 도착할 때마다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착한 아이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셨다. 우체국 소포 덕분에 더 가까워지셨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내우편을 경험했으니, 다음번에는 멀리 하와이에 살고 계신 고모에게도 편지를 부쳐볼 생각이다. 내 편지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9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하와이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니 재미있고 벌써부터 웃음이 났다.

우체국은 거리와 상관없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주는 전해주는 전도사 같다. 11년 동안은 우체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다.

요즘은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문자나 카톡으로만 주고받는다. 손으로 마음을 전한 편지는 문자나 카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따뜻함이 들어 있지만 대부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내 편지를 들고 뛰어 들어오신 아빠의 얼굴에서 손 편지가 주는 엄청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편지를 받은 형의 표정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짝짝 응원에 감동해 눈물이 찼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따뜻해하고 감동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종종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해보아야겠다. 가족의 정서가 좀 메말랐다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커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도 손 편지를 직접 받아보게 해보고 결혼하면 자식들에게도 이 따뜻한 경험을 물려주고 싶다.

보물 1호



초등 고학년

이찬희



할머니가 보내주시는
커다란 택배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계절이 들어있다.

아빠가 좋아하는 나물들은
봄마다 할머니가 산으로 들로 다니시며
뜯어다가 고운 벌레 바짝 말랐고

엄마가 좋아하는 애호박과 토마토들은
여름 내내 햇빛과 물 먹고
토실토실 싱싱하게 도착했다.

이른 가을 제일 먼저 수확해서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보내셨을
하얗고 말간 햅쌀들.
쌀 냄새가 그렇게 향긋한 줄
우리 할머니 쌀을 보고 처음 알았다.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건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잘 나오는 연필인데도
꼭꼭 눌러서 쓴 그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다.

사랑하는으로 시작해서
사랑한다고 끝나는 할머니의 편지는
엄마 이름 불렀다가
내 이름 불렀다가
할머니의 포근한 흠냄새가 전해지는 듯하다.

우리 엄마를 울게 하고
내 코도 찡하게 만드는 그 편지는
내 보물 1호다.

앞으로 발전하게 될 우체국의 미래



중고등부

신정민



먼 미래, 우체국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나는 요즘 변화하고 있는 그 시대의 중점에 살고 있다. 온라인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여러 디지털 문화들이 발전해 나가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더욱 더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현재 교육 분야에서도 코딩 및 로봇 산업 등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주위에만 해도 코딩 수업을 받거나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만큼 오랜 시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래가 곧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럼, 우체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현재의 우체국은 편지나 택배 등을 배달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당장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바로 지금, 현재에도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거나 손으로 작성한 내용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소포나 택배 등은 우체국을 통하기도 하지만, 이전처럼 편지를 보내는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일단 나는 미래의 우체국은, 디지털화된 편지(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 같다.

디지털화된 편지를 우체국 쪽에서 받으면, 스마트폰이 보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거나 개인 기기로 전달하기에 용량이 크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체국이 대신 전달해 주게 될 것 같다. 아마 미래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아이언 맨과 같이 증강현실로 허공에서 전송 작업을 할 것도 같다.

그래서 아마 집배원 분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 같다. 직접 전달하고 배달하는 대신에, 디지털로 보내는 기술이 도입되어 우체국에서 근무하려면 이러한 디지털 상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사적인 내용이 담기거나 비밀이 담겨있을 수도 있기에 해킹을

예방하는 제도나 규범이 새로 생겨야 할 것이다.

또한 소포와 같은 배달 서비스는 드론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드론 기술에는 불안정함이 있고 정해야 할 법도 많지만, 미래에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면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드론이 정말 상용화 된다면 필요한 법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 드론이 공중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이 우연적인지 고의적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잣대도 세워져야 하며, 설령 공중에서 해킹이라도 당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위험한 물건을 드론을 이용해 빠르게 배달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택배 사업처럼 드론이 건달 수 있는 하중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체국의 외관이라거나 건물 모양새도 많이 바뀔 것 같다. 어쩌면 우체국은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메타버스 안의 공간에 존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체국 또한 하나의 가상공간에 존재하게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디지털화된 것들을 전달하게 되는 곳으로 바뀌므로 전자 기기들이 늘어난 건물 내부가 상상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많이 도입되어 증강현실로 우편물 접수 업무를 처리하고, 가상현실로는 드론이 배달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살짝 나의 희망이 담긴 미래 우체국의 모습에는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더 이상 공들여 글씨체를 바꿀 필요도, 이유도 없어진 세상에서 진심 어린 손 편지를 전달하던 우체국에서는 손수 쓴 편지를 기념하여 전시하거나 가끔 손 글씨를 쓰는 이벤트가 열렸으면 좋겠다. 우체국의 모습 또한 많이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연필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는 기쁨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을 이어 주는 집배원



중고등부

류원엽



“앗! 혹시 할아버지 아니에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나의 할아버지가 멋진 포즈로 서 계셨다. 구겨지고 색 바랜 사진이었지만 할아버지 특유의 곱슬머리와 짙은 쌍꺼풀 덕분에 나는 보자마자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맞아! 집배원으로 근무하시던 시절 사진이란다. 아직 사진이 남아 있었네.” 아버지 역시 보물을 발견한 듯 신기해하며 한참 동안이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쓴 할아버지는 보고 또 봐도 정말 멋져 보였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를 만난 반가움도 잠시, 할아버지 어깨에 멘 커다란 갈색 가방이 자꾸만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의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집배원으로 근무를 하셨다. 제비가 소식을 전하듯, 곳곳을 다니시며 편지나 소포와 같은 우편물을 배달했다. 집배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셨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아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울퉁불퉁한 길에 자전거가 넘어지는 일도 많았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바퀴에 구멍이 나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다른 손으로는 소포를 들고 배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리고 폭우나 폭설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우편물 받을 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났다고 했다. 집배원으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한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집배원 시절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아서 언제 들어도 흥미롭기만 하다. 그리고 집배원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분명 우편물을 전하며 집배원으로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셨을 것이다. 군대 간 아들이 보낸 편지를 전할 때는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건넸고 자식에게 보내는 소포를 전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하신 나의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나는 닮고 배우고 싶다. 집배원의 살아 있는 역사인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전화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편을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 멀리 들려오는 집배원의 발자국 소리가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 같다. 물론 집배원들이 우편을 배달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겠지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지고 또 그만큼 가볍게 느껴졌을 것이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연결해 주며 기다리던 소식과 함께 그 마음까지 고스란히 전해주는 집배원이야말로 예전에도, 지금도 세상을 이어주는 최고의 전령사라는 생각이 든다.

시대가 변하면서 집배원의 역할은 훨씬 다양해졌다. 인터넷을 통한 배송이 많아지면서 소포나 택배 업무가 늘어났고 국제화 시대 속에서 해외 우편이나 해외 배송 물품도 많아졌다고 한다. 늘어난 업무량만큼 많이 고되고 힘드실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프다. 집배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업무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시면 좋겠다.

세상의 중심에 우체국이 있어 든든하고 세상을 이어주는 집배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빨간 우체통 속 기다림과 설렘, 기쁨과 슬픔이 담긴 수많은 사연을 전하며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집배원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된다. 그리고 우체국의 꽃이라 불리는 집배원들이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향기로운 소식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주면 좋겠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나의 할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멋지고 특별한 일을 하신 할아버지께 오늘 나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부치고 와야겠다. 평생을 바쳐 편지 전하는 일을 하셨던 나의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내 편지를 받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라도 행복한 추억에 잠겼으면 좋겠다.

불전함이 아닌 큰 우체통



중고등부

조민선



아빠, 엄마 난 절에 안 가면 안 돼? 난 정말 가기 싫단 말이야. 왜 쉬는 날 가는 건데...
나도 쉬고 싶고 친구들과하고 놀러 가고 싶단 말이야...

일요일 아침... 나의 불평불만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아빠,
엄마...

짜증 났다. 난 정말 가기 싫다고... 나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니 할머니께
전화하셔서 지금 출발하니 준비하세요. 라는 아빠와 할머니의 통화가 더 짜증 났다.

그렇게 할머니 댁에 들러 할머니를 모시고 한 시간가량 차로 가서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아주 큰절에 도착하였다. 한참을 걸어 절에 도착하니 입구 쪽에 큰 우체통이 하나 보였다.
'어 저거 지난번엔 없었는데... 언제 생겼지? 아빠 저기 봐 큰 우체통이 생겼어? 그러네!
언제 생겼지. 아빠의 말씀에도 할머니 입구에서부터 합장하시고 인사를 하신다. 아빠,
엄마, 동생도 할머니를 따라 하지만 난 대충 고개만 까닥이고 좀 떨어진 채 따라가고
있었다.

왜 부처님께 저렇게 인사를 하시지... 그럼 할머니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함께
와서...

아이 정말 짜증 나 친구들과하고 놀려고 했는데... 더워진 날씨에 온몸엔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었고 법당으로 들어가시는 가족들을 보고 난 밖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우리 강아지 더운 날씨에 할미 따라오기 싫었지.
친구들과 놀고 싶었지!' 뭐야 할머니가 어떻게 아셨지! '우리 강아지 얼굴에 전부 쓰여있네'
뭐야 우리 할머니 혹시 아빠가 말씀드렸나? 우리 강아지 저기 찻집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할까? 라는 말씀을 하시며 난 달달한 걸로 시켜놨. 하시더니 봉투 두 개를 입구 쪽에

있는 큰 우체통에 넣고 오신다. 어 할머니 언젠지 저 큰 우체통을 보셨대? 할머니 그거 불전함 아니고 우체통이야 라며 할머니께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머니 우체통인데 불전함인 줄 착각하셨나? 종얼거리며 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찻집으로 향했다. 카페가 아닌 전통차가 많은 찻집이지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유자차였다. 가족들과 함께 찻집에서 더위가 가실 때까지 머물렀고 한 참 후에 할머니 유골함이 보관된 지하로 향하셨다. 그곳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시지만, 할머니 늘 절에 오실 때면 가보고 싶다며 아빠께 전화하셔서 이곳을 오신다….

근데 참 이상한 건 할머니 나와 내 동생은 아직 어리다며 그곳을 못 들어오게 하시고 할머니와 아빠만 들어가신다는 거다.

또다시 한참 후에 나오신 할머니와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차로 향하였고 난 차 안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며 투덜거리며 짜증을 냈다. 내 투덜거린 소리에 할머니 웃으시며 이 할미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짜증 났구나! 미안해, 라며 웃으신다….

그렇게 이 주 정도 지났을까? 엄마와 아빠의 통화 내용이 다급하게 들렸다.

아주 건강하셨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거다. 이상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할머니는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절에 모셨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이제 나를 우리 강아지라 불러주실 분이 없고 쉬는 날 절에 가자는 분도 없으시고 카페가 아닌 찻집에 올 일도 없어졌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빈자릴 느끼고 힘들어할 때쯤 할머니 글씨의 손 편지가 내 이름과 동생 이름으로 도착했다.

우리 강아지 내 똥강아지 이란 글씨가 또박또박 쓰여진 봉투 편지에는 내 이름 석 자가 쓰여있었다. 우리 강아지 할미 따라 절에 오는 거 싫은데 늘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절에 와서도 할미 따라 합장 후 부처님께 인사도 잘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할아버지께 함께 안 가 서운했지. 그건 아직 어린 우리 강아지들한테 혹여 나쁜 기운이 갈까 봐 이 할미만 들어간 거야. 이 할미는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강아지는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말만 해야 하는데 행여 나쁜 귀신들이 우리 강아지 피해 줄까 봐 그런 거니까 할아버지 못 본다고 서운히 생각지 말고 알았지.

할머니 늘 부처님께 기도한단다. 이 늙은이가 다 아플 테니 잔병치레가 많았던 내

똥강아지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음 좋겠고 그저 옛날 똥개처럼 건강하게만 자라길 부처님께 기도한다.

이 할미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똥강아지들을 위한 기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절에 간다는 핑계로 사춘기가 막 시작된 투덜이 강아지를 보니 이제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강아지야 할미 따라 절에 가기 싫어도 부처님께 우리 강아지들 얼굴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하니 이 할미 생각해서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주렴. 고맙고 미안해. 우리 강아지.

할머니의 편지에 난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했다. 할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난 할머니의 편지를 보고서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절에 오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숨고 싶었다.

그리고 할머니 내 생각과 달리 절에 있는 느린 우체통이 불전함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난 이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할머니께 투덜거리며 철없이 행동한 게 미안해서... 느린 우체통에 답장을 넣고 싶지만, 할머니 내 어리석음의 답장을 읽을 수가 없어서 후회됐다.

이젠 주말이 되면 우리 할머니를 보러 느린 우체통이 있는 절에 갑니다. 그리고 할머니 따라쟁이가 되어 부처님께 할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선 할머니도 아프지 마시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손 편지



중고등부

이지운



어릴 적부터
손 편지 쓰는 것이
좋았다.
한 손에는 편지
다른 손으로 아빠 손
꼭 쥐고 우체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좋았다.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었다.
먼 회사 계신 어머니
멀리 사는 친구
이사 가신 선생님
손 편지는 잊지 않게 해준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들의 진심이
목소리와 말투가
얼굴이 묻은
글자 하나하나가

내게 스며든다.
손 편지는 온기를 전해준다.
편지는 느리다.
쓰는 시간
답장이 오는 시
기다리는 시간
느리게 흐른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느리지 않아서
마음이 담길 시간이 없다.
빠르게 회전하는 사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내 속도도 점점 빨라지지만
이 세상을 건너가는
편지들만큼은 오래오래
느렸으면 좋겠다.

인사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중고등부

조 안 유



“아들아 학원 가는 길 휴대전화만 보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면 동네 분들에게 인사 잘하고 학원 조심히 잘 다녀오렴.”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집을 나섰다. ‘아휴 또 시작이구먼. 다른 친구들은 휴대전화도 빨리 사줬는데 6학년이 된 이제야 사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학원을 마치고 오는 내내 휴대전화만 보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엄청 많은 상자를 카트에 싣고 택배 기사 아저씨가 타더니 배달 총마다 누르신다.

순간 짜증이 났다. ‘저 아저씨는 뭐야. 왜 하필 내가 탈 때 걸려서 총마다 서겠네. 아휴 짱나...’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은 많은 상자와 아저씨 그리고 나뿐이고 땡땡 하면 하나씩 집 앞에 배달되어 줄어들고 남은 상자들만 보였다. 문득 내 시선이 향한 곳은 이미 지나 버린 우리 집. 누른 층 중 우리 집 층이 없어 아저씨를 쳐다보니 아저씨께서 제게 물으신다. “어찌니? 내가 깜박하고 너희 집 층을 안 눌렀네! 미안해.” 그러시더니 눌러 주신다. 난 그렇게 아저씨와 1층부터 맨 꼭대기 층까지 함께 했고 우리 집을 알고 계신 아저씨가 갑자기 무서웠다. 난 무서운 생각이 들어 건성으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나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럼 혹시 나쁜 아저씨인가? 그럼 난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난 나쁜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듯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약 10분이란 시간이 너무 공포감이 밀려왔고, 조금씩 움직여서 비상벨을 누를까? 아님 휴대전화로 신고할까?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할까?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순간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무서웠나 보네. 우체국 택배 아저씨야!” 하시며 신분증을 보여주셨고, “네가 몇 층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택배 도착 문자가 너희

어머니께 가면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늘 음료수를 현관 입구에 놓아 주신단다. 그때 너 기억 안 나? 삼촌이 생일선물 보내주신 거라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보니 기억이 났다. 그리고 난 그 아저씨 얼굴을 보고 그제야 모든 게 안심이 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짜증 내고 공포스럽게 느꼈다는 게 죄송스러웠다.

난 아저씨로 인해 온몸이 땀으로 가득했고 아저씨 택배 상자 배달하시느라 온몸이 땀으로 가득한 게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택배를 배달하는 게 힘들지만, 너처럼 나를 기다려 주고 고맙다고 인사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고 힘이 나는 말인 것 같아. 물론 감사 인사도 하지 않고 상자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겠어! 내가 아닌 상자를 기다린 건 맞잖아.”라며 내에 긴장된 몸을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아저씨가 무척이나 더 고마웠다.

집에 도착한 나는 엄마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더니... “그래 이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배달해 주시는 아주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말고 집 밖을 나가 어른들을 만나면 꼭 인사 잘하고... 엄마 말이 잔소리 같지만, 인사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거란 걸 잊지 말길 바란다...”

그렇게 난 아저씨와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학원 끝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저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다. 왜냐면 행복을 배달하고 기쁨을 느끼는 아저씨를 볼 수 있어서였고 내 인사로 인해 웃을 수 있다는 우체국 택배 아저씨 말씀이 항상 감사했기 때문이다.

정말 엄마 말씀처럼 휴대전화를 안보면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보였고 인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고리인 것 같아 앞으로도 인사 잘하는 멋진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우체국장이라면

중고등부

오재후



여러분, 제가 전라북도에서 우체국장이 된다면 사회를 이바지하는 우체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는 저출산이 높아지고,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가 우체국장이 된다면 우체국이 가진 역량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전라북도는 여전히 농업생산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임실 고추, 장수 사과, 무주 블루베리, 김제 지평선 쌀 등등 많은 농산물의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전라북도에는 노인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청년들이 있어도 보통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장이 된다면 특별한 우체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짝을 찾아주는 우체통'입니다. 짝이 없는 남녀가 이곳에 자기소개서를 넣어 부치면 우체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소개팅 시스템을 만들어 미혼율을 낮추고 결혼율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활용된다면 지방의 인구 소멸 속도도 늦춰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돌봐주실 시설이 필요하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아이돌봄 시설과 비슷하게 어르신들 돌봄 시스템을 우체국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도시에 사는 자녀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니 우체국에서 일정 정도의 소액을 내시면 택배를 하는 분과 우편을 배달하는 분들이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부를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정기적으로 자녀분들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체국이 사회공헌을 많이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우체국에 호감을 가지며 더 친밀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우체국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 매년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책도 잘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 문해력이 나빠지니 편지도 잘 쓰지 못합니다. 줄임말과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대신 정성스럽게 손 글씨로 보내는 편지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예쁜 손 글씨 편지쓰기 대회를 만든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체국과 가까워지고 문해력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한쪽에 오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책을 갖다 놓고 유명한 작가들의 편지글로 꾸며진 공간에서 가정폭력이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응원과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우체국장 오재후였습니다.



두근두근 편지



중고등부

이 울 회



오래된 폰을 가지고 계신 할머니는
사진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나는 늘 할머니에게 나를 보낸다.

강원도라 늦게 오는 봄 대신
활짝 핀 벚꽃 아래 내 모습
할머니는 벚꽃보다 내가 더 이쁘다 하신다.

여름에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내 모습
할머니는 옥수수귀신 하시며 뿌듯해하신다.

가을에는 공원의 단풍나무 아래
다소곳한 내 모습에
할머니는 언제 이리 컸냐며 아쉬워하신다.

그리고 겨울에는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목도리를 두른 내 모습
할머니는 따스게 입고 다니래이
잊지 않으신다.

나는 열심히 찍어 보내고
할머니는 잠이 안 오는 긴긴 밤
내 모습 보고 또 보신다고 한다.

집 언덕 아래
우체부 아저씨가 보이시면
우리 울아 온다 울아 온다.
소녀처럼 가슴 두근거리신다.

미래 우체국에서의 신기한 체험



중고등부

임 하 은



안녕? 2035 우체국 체험관에 온 것을 환영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이야기 알지? 오늘 여러분은 그 소설 속의 찰리와 같은 행운을 얻은 거야. 그럼, 오늘의 체험을 시작해 볼까?

체험관에 입장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외국어를 몰라서 외국 친구를 못 사귀다는 친구들 있지? 걱정하지 마. 우체국 앱은 실시간 번역해 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No! 언어를 선택하기만 하면 네가 쓴 편지도 그 친구의 언어로 바뀌어서 전달해 주거든.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금융 거래를 했지. 물론 보험도 가입하고 말이야. 이제는 우체국이 생활 복합센터가 되었어. 전국 곳곳에 없는 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했던 거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바로 운동하는 곳이야. 운동 좋아하지? 이곳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와 농구 같은 구기 운동이었어. 그런데 공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내 운동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 물론 축구도 할 수 있어. 이 시뮬레이션을 동작시키면 축구 경기가 시작돼. 물론 혼자 와도 충분히 축구를 즐길 수 있어. 우리도 팀 나눠서 축구 경기해 볼까?

이제 갤러리로 가볼게. 처음에는 전시실을 대여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실을 마련했지. 그런데 이곳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많은 작가가 이곳에 전시하기 시작했어. 유명한 작가 누구 알아? 아마 그분의 작품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유명한 전시실 중 하나가 되었던 말이지.

어디서 시원한 공기가 느껴진다고? 맞아. 다음 장소는 공원 체험관이야.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서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해졌지. 도시에서 깨끗한 공원을 보기가 쉽지 않았고, 쿵쿵쿵쿵 기침하는 환자가 많아졌어.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깨끗한 공기가 절실했어. 그래서 도시 곳곳에 있던 우체국을 활용했어. 그리고 이곳에 치유의 공간을 만들었지. 크게 숨을 쉬어봐. 상쾌하지? 마치 예전의 푸르른 숲에 온 거 같지 않아?

또 있어. 숲 뒤로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여? 실제로 여기서 사는 동물이냐고? 아니, 동물들은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든 거야. 그래도 이곳 공원에 오면 동물원에 온 것처럼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어.

‘꼬르륵’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네. 배고프지? 바로 옆에 지역 생산물 판매점으로 가볼까? 이곳은 가까운 지역의 생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재료가 무엇보다 싱싱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지. 물론, 오늘은 내가 초대한 거니까 맘껏 골라봐!

자, 어때? 오늘의 체험이 나중에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미래의 우체국은 또 어떻게 변할까? 그 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 말이야.

오늘 잊지 못할 체험이 되었다면 다 같이 기념 영상 만들어 볼까?



우체부 아저씨의 하루



중고등부

정선용



무더운 여름
두툼한 가방과
오토바이 위 빨간 통에
편지를 콕콕 채워 넣고
집들을 향해 달린다.

크나큰 도시를 달리며
이곳저곳 편지를 넣고
작고 작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이쪽저쪽 편지를 전한다.

얼마 남지 않는 편지는
산동네의 높고 높은
계단을 올라간다.

노랬던 태양이
붉은빛으로 번지고
그 길었던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일찍 나온 별 하나가 반짝이고
흘쭉해진 가방은
힘없이 축 늘어진다.

일 끝난 우체부 아저씨
돌아가는 길에 만난 우체통
“힘내세요!”
빨간 미소로 응원해 준다.





마음을 전해요

중고등부

이민지



유난히 짙은 물 내음이 났다. 맡아본 적 없는 진한 바다향에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빨간 우체통을 발견했다. 휴양 온 바닷가에서 우체통이라니. 아빠는 이것도 운명이라며 편지를 쓰자고 했다. 투병 중인 아빠는 독한 약 때문에 무기력하기 일쑤였어서 무언갈 하자는 아빠의 제안이 너무 반가웠다. 나는 선뜻 좋다고 답했다. 평범한 편지는 재미없으니 느리게 오는 편지로 하자며 1년 뒤 본인에게 적기로 했다. 열네 살의 내가 열다섯 살의 나에게. 십 살의 아빠가 십하나의 아빠에게. 스마트폰의 발달로 현재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예전의 방식으로 미래에게 마음을 전했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니 무언가 속스러워 펜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했다. 내 고민의 흔적이 편지지에 점들로 남았다. 이렇게 고민하는 나와 달리 아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적어 내려갔다. 아빠는 무슨 말을 쓰길래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궁금해서 편지지를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등 뒤로 획 감추고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도저히 보여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현재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미래의 나에게 들려주려 써 내려갔다. 꾸역꾸역 가득 채운 편지지를 봉투에 담고 우표를 붙였다. 이제 이걸 1년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꽤 길었기에 그 뒤로 새까맣게 잊고 살았다.

시간이 한참 지난 7월의 어느 날이었다. 대차게 내리던 장맛비를 겨우 헤치고 아파트 1층에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우편함에 낫선 편지 봉투가 두 개 꽂혀 있었다. 아 편지. 그제야 생각이 났다.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책상에 앉아 서둘러 편지를 뜯었다. 미래에 당신이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십 살의 아빠는 열다섯 살의 나에게 썼다. 두 장의 편지지에 담긴 아빠가 나를 반겼다. 어엿하게 성장했을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자마자 이런 내용을 썼으면 그때 미리 좀 보여주지. 나는 왜

더 나은 딸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했다. 아빠의 편지에는 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한복판에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제 다 커서 아빠 밥도 차려주는 의젓한 모습을 보면 아빠가 없어도 잘 지낼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다며 혹시 치료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우리 딸이 어디에서 무슨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한다고 그랬다. 아빠가 얼마나 꾀꾀 눌러썼는지 움푹 파인 글자를 손으로 훑으니 띄어쓰기 사이사이에서 아빠가 살아 숨 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바닷가에서 말았던 짙은 물 내음이 전부 코로 나온 듯 찡했다. 망설임 없이 확확 그어진 게 아빠의 필체는 아빠의 성격을 꼭 빼닮았다. 아빠의 문체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적은 태교 일기와 똑같았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아빠의 문체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보였다. 그날 아빠의 마음은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으로 과거의 아빠는 현재의 나와 연결되었다. 편지 두 장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 아빠의 편지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몸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종종 편지를 쓴다. 우리 집에서 부쳐서 우리 집으로 오는 편지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전에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디에다 전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아빠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체국을 통해 아빠에게 마음을 전한다. 언젠가 내 마음이 저 먼 하늘에게도 닿는다면 아빠도 읽을 수 있겠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간곡히 바란다.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023 우체국 문화전

그짓기 대회

• 장려상 •





| 초등 저학년 |

이루이	강은수	김민유
김서영	하예진	최지민
조은재	주아진	조효은
이민석	권설아	양하윤
성우재	김동하	김하린
임하린	박시윤	김기현
이예원	영희연	

| 초등 고학년 |

노재빈	이종윤	기하윤
조한준	김지유	장혁주
임유진	문서준	송선우
김리아	권은찬	김우현
김유환	문예원	김소울
정화준	이도윤	이선울
나율이	김유주	

| 중·고등부 |

설하람	하정연	문시우
조윤서	김민준	박은서
선민서	정원준	이시연
함유준	황은비	김수빈
백희원	문정윤	조한민
위다인	이서린	김연주
고은우	유나영	

하늘나라 우체부



초등 저학년

이 루 이



이번에
이모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이모부 할아버지가
병실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

지금은 편지를
쓸 수
없지만
편지 한 편을
보냈다.

아마도 하늘나라 우체부가
편지를 보냈을 거
같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며칠을
기다려도 편지가
안 왔다.

나는 슬픔에 잠겼다.

그래도
하늘나라 계신
할아버지가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슬프지 않았다.

우체국은 사랑터



초등 저학년

김 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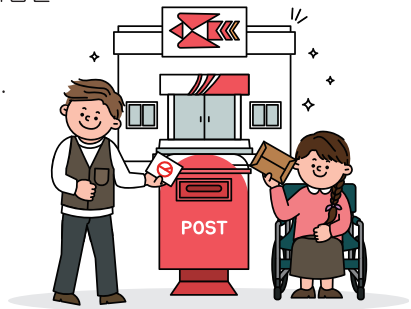
우리에게 우체국은
좋은 사랑터다.

우체국은 오늘도
편지처럼 아주 많다.

우체국 직원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우체국 배달원이
편지를 열심히 배달한다.

우체국은 따뜻한 마음을
잔뜩 나누는
행복한 사랑터.



밥=사랑. 사랑의 전달사 우체국



초등 저학년

조은재



얼마 전 우체국 택배 상자 하나가 집 앞에 놓여있었다. 엄마는 택배를 끄꿍대며 들고 들어오시며

“어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보내셨대.”

하셨습니다. 테이프로 끄꿍 잘 싸여진 택배 상자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파김치, 고구마순 김치, 배추김치와 장조림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김치 국물이 썰까 봐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닐봉지로 묶인 반찬통에서 항상 깔끔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이 그려졌다.

엄마는 하나하나 반찬을 풀러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는 우체국을 보면, 우리 은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에서 혼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위해 항상 김치랑 반찬들을 만드셨고 할아버지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비닐봉지로 묶고 테이프로 꼼꼼히 포장해서 우체국으로 들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다 지쳤을 때나 일이 힘들 때 집에 오면 문 앞에 놓여있는 우체국 택배 상자에 위로받으셨다고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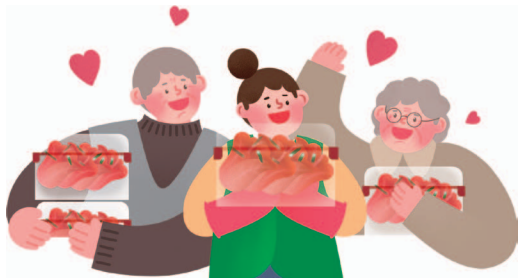
“많이 힘들지? 우리 딸, 이거 먹고 기운 내.”

하는 것 같으셨다고. 따뜻한 밥에 할머니의 정성 어린 반찬을 올려 한 숟가락을 뜨면 눈물이 났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반찬은 엄마가 좋아하던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유독 김치 종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할머니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담가 보내주시곤 한다. 그래서 나도 우체국 택배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혹시? 하면서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때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도 같다. 기분이 안 좋을 때 할머니의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기 때문이다. 꼭 우체국 택배만 이용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나에게도 우체국은 내 그리운 마음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흔한 인사말이 “밥 먹었어?”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밥이 중요하다. 밥을 챙겨주는 것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인 것이다. 멀리서도 우리를 위해 정성껏 밥을 챙겨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체국은 이렇게 가족 사이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랑 전달사인 것 같다.



변함없이 사랑받는 우체국



초등 저학년

이민석



“편지요.”

“소포 왔어요.”

“.....”

오래전에는 편지와 작은 물건은 대부분 우체국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다운 우체국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아저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체국도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다. 우체국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우편함에는 우표와 우체국 도장이 찍힌 우편물이 자주 배달됩니다. 문 앞에 소포와 택배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는 받을 사람에게 직접 확인을 받고 전달됩니다. 만나지 못할 경우는 다시 방문한다는 안내문이 현관문에 붙어있습니다. 우체국을 많이 볼 수 없어도,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해도, 우체부 아저씨를 만나지 못해도 우편물과 택배가 사랑과 소식을 담아 찾아옵니다.

우리 생활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30년 전에는 아주 부자들만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1킬로그램 정도의 커다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아주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더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럽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의 기능도 다양해졌습니다.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예의 없다고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볼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화보다는 문자와 대화방 등으로 소통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직접

소통보다는 문자와 기호에 의한 간접 소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대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연필과 펜으로 정성껏 마음을 담아 직접 쓴 편지, 컴퓨터로 작성한 후 예쁘게 출력해서 편지 봉투에 담아 보내는 편지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화해도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체국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지와 등기우편뿐만 아니라 택배, 예금, 보험,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실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사시는 작은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쌀과 채소, 사과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어제 보냈는데 오늘 도착해서 채소가 싱싱하다고 엄마는 좋아하십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을 전하고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며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우체국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하면 우체국도 시대에 맞게 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체국.

감사합니다, 우체국 사람들.





시 우체국

초등 저학년

성우재



땡
딸 학교 도착
땡땡
딸 집 도착
땡땡땡
딸 냉장고 간식 먹다
.....
출장 간 엄마 핸드폰에
우체국 편지 알림이 도착합니다.

파랑
할아버지 댁에 김치 도착
초록
할아버지 김치 상자 개봉
.....
회사 간 아빠 핸드폰에
우체국 택배 알림이 전달합니다.

띠리리띠리리띠리리
할머니 어지럼증 발생
할머니 혈압약 깜박하셨네.
띠리리

할머니 혈압약 드셨네.
외출한 할아버지 안심하시고
아빠, 엄마도 걱정 놓으시고
우체국 보험 알림이 관리합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우체국
인공지능으로
새로워진 우체국

두근두근



초등 저학년

임 하 린



“하암, 잘 잤다.”

눈을 뜨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에휴...”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겨우 떼며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걱정이 몰아쳤다.

“하리아, 날씨는 이렇게 맑은데 너는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아. 왜 그래?”

“엄마, 선생님께서 우리 집 주소 종이를 잃어버리신 걸까? 아니면 우체부 아저씨가 선생님 편지를 흘리신 걸까?”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적으시느라 조금 늦는 것 같아. 기다려 보자.”

다음 날도 눈을 뜨자마자 어김없이 우편함을 살피려 내려갔다.

“우와!”

“하린이 얼굴에 웃음꽃이 핀 걸 보니까 편지가 도착했나 보네”

꽃무늬 편지 봉투에 하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편지지를 소중히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초등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안부 인사와 함께 선생님의 일상이 적혀있었다. 읽는 내내 선생님과 함께 한 어린이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라서 미소가 지어졌다.

편지 보관함에 편지를 넣으면서 그동안 받았던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 간편하게 보내는 만큼 내 마음과 느낌을 정성스럽게 전달하지는 못했다. 편지를 쓸 때는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글자를 하나하나 고민하며

정성스럽게 쓰고, 답장이 오는지 매일매일 두근두근 설레면서 기대한다. 편지를 받았을 때는 사탕을 먹을 때처럼 달콤하고 보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우체국에 편지를 넣을 때는 뿌듯함, 기대감, 설렘, 행복 가득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낼 때는 감동, 고마움, 기쁨 가득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방학을 맞이하여 자주 보지 못하는 반 친구들에게 편지로 내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편지를 받을 친구들의 표정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가슴이 뛰다.





사계절 우체통

초등 저학년

이 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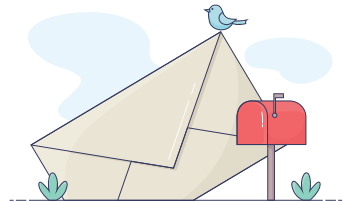
봄에는
꽃잎 엮은
핑크빛 우체통

여름에는
햇빛 받은
뜨거운 우체통

가을에는
낙엽 엮은
갈색 우체통

겨울에는
눈 쌓인
하얀 우체통

사계절 동안
고생하는 우체통에게
편지를 써서
빠알간 우체통에
넣어줍니다.



마음 우체통



초등 저학년

강은수



배가 고프지?
편지를 쓰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서 있기 힘들지?
빨간 옷 입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얼마나 덥니?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많이 외롭지?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마음 우체국

초등 저학년

하 예 진



동네에 특별한 우체국이 생겼다.

“마음 우체국?”

궁금한 마음에 우체국으로 들어가 보았다.

“어서 오세요!”

꼬마 요정 우체부가 우주를 반겨 주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편지를 보내고 싶나요?”

꼬마 요정 말에 같은 반, 연서가 생각났다. 우주가 유치원 때부터 좋아하는 여자 친구다.

우주 얼굴이 빨갭게 물들었다. 꼬마 요정은 우주에게 편지지를 주었다.

문방구에서 파는 편지지와 달라 보였다.

“연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우주는 깜짝 놀랐다. 우주가 연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요정은 알고 있었던 거다.

마치 우주 마음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다.

- 안녕, 연서야? 나 우주야. 유치원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 -

편지를 쓰는데도 떨렸다.

“이 편지는 연서에게 전달해 줄게요.”

“정말이요?”

꼬마 요정은 우체통에 편지를 쓱 넣었다. 그러자 우체통이 빨간 불빛을 뿜어냈다.

“어? 이게 뭐지?”

연서가 택배 상자를 열어 보았다. 그러자 알록달록 빛이 새어 나오면서 편지지가 보였다.

“누가 나한테 보낸 거지?”

연서는 궁금한 마음에 편지를 열린 열어 보았다. 그 순간, 연서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이 흔들렸다. 연서는 무서워 눈을 꼭 감았다. 몸이 흔들리는 것이 멈추자, 눈을 떴다.

“어? 여기는 어디지?”

연서 눈앞에 텔레비전이 있었다. 텔레비전 속에 같은 반, 우주가 있었다.

연서는 우주가 별로였다. 학교에서 연서에게만 장난을 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면 속에 보이는 우주는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달라 보였다.

“연서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우주가 혼잣말을 하면서 연서 주위를 왔다 갔다 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연서에게 다가온 우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냥 가는 모습이 연서에게 보였다.

장난을 쳤던 우주 마음을 연서는 알게 되었다. 그러자 기분이 좋아지면서 눈물까지 찼다.

“바보! 나도 너 좋아한단 말이야.”

연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또다시 몸이 흔들렸다. 연서는 또 눈을 감았다. 눈을 다시 떠 보니, 눈앞에 우주가 있었다.

“연서야, 내 편지 받았어?”

“응. 그래서 네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어.”

연서 말에 우주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용기를 내서 연서에게 말했다.

“우리 사귄래?”

“좋아! 오늘부터 1일이야.”

둘은 첫 데이트 장소로 마음 우체국을 정했다.

우체국은 모두다



초등 저학년

주 아 진



우체국은 주사위다.

편지를 여기저기 가져다주니까.

주사위가 4를 가르키면 편지는 4번지 우편함으로 가져다주고

1이 나오면 편지는 1번지 우편함으로 가져다주니까.

우체국은 오토바이다.

편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뿔 달려오니까

1번지로 편지를 뿔~ 2번지로 편지를 뿔~ 가져다주고

또 뿔~ 가져다주니까.

우체국은 글씨다.

편지를 쓸 때 글씨가 나오고 글씨를 쓰니까 우편함도 글씨다.

편지와 우체국은 글씨다.

우체국은 모두다.

우체국과 편지는 글씨고 우편함에 있는 편지를 오토바이가 뿔~.

주사위를 굴려서 3이 나오면 오토바이가 3번지로 뿔 갖다 주니까.



우체통 아저씨

초등 저학년

권 설 아



우체통 아저씨는 혼자 서 있으면
안 심심할까?

혹시 밤이 되면 콩콩 뛰면서
우체통 친구와 같이 놀까?

우체통 아저씨가 너무 심심하면
편지를 몰래 읽을까?

그러면 샤워 어떻게 할까?
맑은 빗방울들이 샤워해 줄까?

우체통 아저씨는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네모난 편지 마시멜로를 먹을까?

우체통 아저씨가 더우면
나무들이 몰래 그늘막을 해줄까?

우체통 아저씨는
비밀스러운 우체통 아저씨



먼지를 먹는 우체통



초등 저학년

김 동 하



얼레

우체통은 편지를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밥을 안주네.

우체통은 먼지만 먹고 있다.

불쌍한 우체통은
겨울이 돼도 봄이 돼도
가만히 있다.

우체통이 바라는 건
사람들이 주는 맛있는 편지 먹기.

가족에 사랑 편지를 먹으면
달콤해서 엄청 신난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편지를 먹으면
새콤한 사과 맛이 난다.

우체통은 이제 먼지 말고
편지 먹기를 기다린다.



내가 만들고 싶은 우체국



초등 저학년

박시윤



내가 만들고 싶은 우체국은
지금 우체국과 아주 달라요.

떨어진 가족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용품을 주고
우체국에 처음 온 사람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우체국 안에는 책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우체국이
이제 곧
동네마다 많이 생길거예요.

북극 제비갈매기에게



초등 저학년

영 회 연



흰올빼미,

북극여우,

일각고래가 헤엄치는

머나먼 북극.

하얀 눈이 펄펄 내려 어떻게 가지?

우리나라 화천 산타우체국에서
예쁘게 그림을 그린 엽서를 쓰고,
또박또박 글씨로 편지도 쓰면,

핀란드 산타 마을에
살고 계시는 산타 할아버지께
누가 전해줄까?

제비는 춥다고 모른 척
쌩~하고 남쪽나라로 날아가 버릴텐데.

초록초록 일렁이는

오로라를 따라

북극 제비갈매기가

내 심부름 해 줄까?

빨강 부리가

더 빨강게 립스틱을 선물 해 주면

소중한 내 편지가

산타 할아버지께

갈 수 있을 텐데.



친절은 추위도 녹여요



초등 저학년

김민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우리 동네 천사무료급식소 바로 옆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겨울방학 때 엄마와 함께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추운 데다가 하얀 눈까지 내려서 길은 유리처럼 엄청 미끄러웠고 겨울 바람도 세계 불고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긴 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가 올해 다시 열게 되었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생활이 어려우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따뜻한 식사를 드시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우체국 앞으로도 한 줄 기차를 하시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어찌나 길던지 뒷부분에 계신 분들은 식사를 못하시면 어쩌지?하며 엄마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기억자처럼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고 발도 시려울거 같아 엄마가 우체국에 들어가서 직원 아줌마께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객들의 일을 돌 봐주시던 그 분은 가벼운 의자를 들고 나가시더니 할머니께 앉아서 기다리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엄청 고맙게 인사를 하셨고 그 직원분은 안에 들어와서도 택배나 편지 같은 일을 보러 온 분들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도와주셨습니다.

짜증도 내시지 않고 다정하고 공손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택배 상자도 골라 주시고, 천천히 설명도 해 주시고, 직접 상자를 옮겨 주시기도 하는 예쁜 아줌마 직원이셨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시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마음씨가 좋은 직원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아줌마 직원도 힘드시지만 참고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니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예의 바른 손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체국 창문밖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뽀뽀 불고 눈을 바람을 따라 여기저기 어지럽게 날려 다니지만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 계셔서 하나도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 시키는 일입니다. 나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닷가 우체통



초등 저학년

최지민



바닷가에서
아주 큰
빨간 우체통을 보았다.

여기에 편지를 넣으면
진짜 배달 될까.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큰 우체통을
어떻게 열까.

멀리 있는 고모에게 쓴
생일 축하 편지를 넣었다.

우체부 아저씨는
커다란 우체통도 활짝 열고

도시에 있는 고모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하고 싶다.



상어 우체통 기린 우체통



초등 저학년

조 효 은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는 길에
우체통이 허수아비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런데 입을 상어처럼 벌리고 있었다.

아무도 편지 밥을 주지 않아
빨강계 화를 내는 상어 같았다.

내가 편지를 써서 할머니께 보내면
우체통은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우리 동네 우체국 앞에
우체통이 기린처럼 목을 빼고 서 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목이 엄청 길어졌다.

내가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보내면
귀여운 우체통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우체통이 다시는 변신하지 않게
편지를 써야지.

내가 우체국장이라면



초등 저학년

양 하 운



엄마와 함께 우체국에 가서 외할머니께 쓴 편지를 부치면서 우체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보았다. 여러 일을 보면서 내가 우체국장이라면 우체국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생각해 보았다.

먼저, 친절한 우체국을 만들고 싶다. 손님들이 오시면 먼저 인사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줄 것이다. 손님들이 편리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것이다. 키오스크가 서투르면 직원들이 달려와서 도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신속한 우체국을 만들고 싶다. 우편물을 빨리 배달해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이다. 물론 안전하게 배송되게 할 것이다. 키오스크도 여러 대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키오스크에 다국어 기능도 설치해 놓을 것이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안마기도 설치해 놓을 것이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기다리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장난감도 주고 놀이방도 만들 것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능을 넣고 수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도와주게 할 것이고 손님들이 많으면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밖의 공간을 만들어서 편히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우체국을 자주 오라고 사은품도 주고 특별 행사를 열 것이다. 우표를 디자인해서 코팅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고, 예쁜 디자인이 있으면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서 허락하면 우표로 발행할 것이다.

또한 지금 우체국들은 일찍 문을 닫지만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우체국은 늦게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 주차장도 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동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리하고 친절한 우체국을 만들고 싶다.



멋진 택배 아저씨

초등 저학년

김 하 린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체국 택배 아저씨예요.
 우리 아빠는 남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월급을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까요.
 내가 택배 상자를 받았을 때 무척 기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아빠가 배달하는 택배를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일할 때가 제일 뿌듯하고 기쁘고 좋대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우리 가족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난대요.
 또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빨리빨리 달리며 일하신대요.
 나도 아빠를 위해 응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빠가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멋진 우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모난 편지지

초등 저학년

김기현



나는 서랍 속에 사는
네모난 편지지.

서랍 속 나를 꺼낸 한 아이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펼치네.

한 아이 손에 들려
우체국에 도착한 나.

이야, 내 친구들이 산더미처럼 많네.

낙엽 편지지 말하길
가을 바람에 실려 멀리 간다고 하네.

태양 편지지 말하길
따스한 소식 싣고 간다고 미소짓네.

무지개 편지지 말하길
빨주노초 색색의 꿈 담아
하늘 가득 물들인다고 하네.

편지지 친구들아,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너희들 소식으로 마음을 빛내 줄래?

나는 행복 기쁨 전하는
네모난 편지지.



내가 우체국장이 된다면



초등 고학년

노재빈



내가 만약 우체국장이 된다면? 상상 속이지만 어떻게 우체국을 이끌어 나갈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버렸다. 아직 학생이기에 우체국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우편물 보낼 때 가끔 엄마 손 잡고 옆에 서서 멀뚱멀뚱 쳐다보다 나온 기억밖엔 없다.

우체국에 걸모습은 똑같지만 건물 크기와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숫자는 조금씩 달라 보였다. 계절에 맞게 택배 보내는 곳에 쌓여 놓은 물건도 달랐고 오토바이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분들의 복장 또한 달랐다. 여름엔 엄청 뜨겁고 더우실 텐데 긴 옷에 헬멧에 보기만 해도 대단하다 싶었고 겨울에 눈이 펄펄 오거나 길이 미끄러우면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내가 우체국장이 되면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먼저 복지 혜택을 바꿔 드리고 싶다. 요즘 장난감 같은 1인용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이는데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자동차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걱정 없이 배달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드릴 것이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뺏아서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다. 우체국에 들어오기 위해 어려운 시험과 면접 대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고 우체국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로 하루 중 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터가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밥도 못 먹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전쟁터 같은 하루가 아닌 정해진 점심시간에 여유롭게 밥을 먹고 안전운전하며 다니는 평화로운 우체국에 모습으로 바뀌 버릴 것이다.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찡그리고 땀에 찌든 우체부가 아닌 밝게 웃고 행복을 같이 전해주는 우체부의 모습을 보는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체국에도 여러 분류로 나뉘어서 일하시는 사람이 많고 어느 업무나 힘들다는건 똑같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본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모습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이 쎄 힘들게

보여서 우체국장이 되면 제일 먼저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바꿔 드리고 싶었다. 그때까지 우체부 삼촌, 아저씨 조금만 참고 힘내세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금방 편하게 바꿔 드릴게요.





우체국에서 보내는 생일

초등 고학년

조한준



2043년 3월 13일

오늘은 현희의 생일이예요. 현희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빠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셔서 소포로 선물을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너무 멀리서 선물이 와서 그냥 우체국으로 직접 가서 받기로 했어요. 현희는 엄마와 함께 이른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못 보던 반찬이 있었어요.

“엄마 이 반찬은 뭐예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아이스 드론 택배로 보내 주신 고등어란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스 드론 택배가 뭐예요?”

“그건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배달하기 위해 드론 속에 얼음을 넣은 드론을 말하지. 이 고등어도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사서 집으로 보내주신 거란다.” 현희는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먹고 엄마와 현희는 우체국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드론들이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만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집배원 아저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택배를 전하고 있었어요. 현희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드론으로 택배를 받으면 편할 텐데, 왜 집배원 아저씨가 직접 가져다주는 걸까?’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지요.

“엄마 왜 집배원 아저씨가 직접 택배를 전해 주는 거예요?”

“호호 우리 현희가 궁금한 것이 많구나. 그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우편배달 서비스란다. 무인 택배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집배원

아저씨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그리고 옛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는 우편배달 서비스란다.”

현희와 엄마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이 둘은 벌써 우체국에 와 있었어요. 우체국 앞에 가니 로봇제비가 반갑게 맞아 줬어요. “안녕, 어서 와!”

우리는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의 우리 동네 우체국이었지요. 엄마와 나는 사람들 뒤에 줄을 섰어요.

조금 뒤, 우리의 차례가 되었어요.

“고객님, 무엇을 찾으러 오셨나요?”

“소포를 찾으러 왔어요.”

“조현희님 맞으시죠? 소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소포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말하는 우표였지요. 말하는 우표 옆에는 홀로그램 우표, 개그 우표도 있었어요.

“엄마, 이거 사도 되요?”

“당연하지! 오늘은 우리 현희 생일이니까 마음껏 사도 돼.”

엄마의 말에 현희는 우표를 둘러 보았어요. 말하는 우표는 “안녕? 친구야!”라고 말하면 따라 말하는 우표였고, 홀로그램 우표는 세계지도를 보여주다가 “한국”이라고 말하면 한국을 보여주는 우표였지요. 마지막 개그 우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해서 현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모두 다 사고 싶었지만 개그가 너무 재밌어서 개그 우표를 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희는 우표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우체국에서 산 우표에 생일 소포, 드론 택배로 받은 반찬까지 우체국은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체국에서 하는 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과 예전처럼 소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예전에도 우체국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그럼 아이러브 우체국, 안녕!

반려견을 위한 우체국 택배



초등 고학년

임유진



엄마가 미용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가위가 부러졌다.

“어떡하지?”

다행히 강아지는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내일 ‘예쁜 강아지 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애견 미용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중요한 가위가 부러지고 말았던 거다.

“엄마, 얼른 주문해요.”

엄마는 급하게 가위를 주문했다. 하지만 3일이 걸린다는 안내 문자에 엄마는 털썩 주저앉았다.

“유진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견주들은 어서 빨리 미용을 해 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가장 중요한 가위가 없어서 힘들다고 했다.

엄마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작년에 일등한 강아지도 있었다. 엄마가 예쁘게 미용을 해줘서 일등을 했었다. 입소문을 타서 엄마 가게를 찾아오는 견주들이 많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옆 가게에서 미용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여기서 해 줄 수 있죠?”

엄마는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할 수 없다는 말에 견주는 인상을 찌푸렸다. 견주의 마음을 알았는지 강아지도 슬프게 짖었다.

엄마는 여기서기 수소문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강아지를 두고 그곳까지 갈 수도 없었다.

마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연락해 주셨어요?”

“그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우체국 택배 아저씨 말을 듣고, 얼굴에 웃음을 찾았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엄마에게 마치 수호천사처럼 느껴졌다.

1시간도 되지 않아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왔다.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엄마는 당황한 말투로 물었다.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겨서 달려왔더니, 땀이 이렇게 났네요. 덕분에 운동 좀 했습니다. 하하.”

엄마는 죄송하고도 감사하다면서 음료수와 간식을 챙겨 주었다.

아저씨가 가져다준 가위로 엄마는 강아지 미용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저씨가 최선을 다해서 택배를 가져다준 것처럼,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강아지를 예쁘게 꾸몄다.

다음 날, 예쁜 강아지 대회에서 엄마가 미용을 해 준 강아지가 일등을 했다. 바로 옆 가게에서 엉망으로 미용을 해서 울상을 짓던 강아지였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준 가위 덕분에 일 등을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우체국 택배만 이용한다. 물론 상황이 맞아서 엄마를 도와준 것도 있지만, 엄마는 무엇보다 우체국 택배의 마음가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다.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나를 도와줬잖아.”

엄마 말을 나도 인정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만 생기는데,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떠올랐던 경험을 나도 한 적이 있다.

반려견을 위해 처음으로 이용한 우체국 택배가 지금은 우리 가족의 평생 친구가 되었다.

나는 우체통입니다



초등 고학년

김리아



사람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나에게 편지를 넣곤 했어요. 멀리 계신 할머니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담긴 이야기나 군대에 간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보내는 애뜻한 감정과 사랑이 담긴 달콤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곤 했답니다. 그 연애편지 이야기를 살짝 들려줄까요?

아마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건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둘의 달콤한 이야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춤지는 않냐며 같이 보낸

크리스마스가 너무 즐거웠고 선물도 고맙다는 내용을 보냈어요. 그걸 보고는 쯔 부러웠어요. 제가 연애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ㅎ 그렇게 서로 사소한 이야기를 써가면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우리, 곧 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후로 편지가 오지 않아서 쯔 아쉬웠지만 다른 편지들로 허전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로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내게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려나 읽어보는데 거기에는 제가 웃으며 읽곤 했던 그 둘의 결혼 소식이 쓰여 있었어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 전하는 편지였던 거죠. 갑자기 결혼 소식을 들으니 내심 뿌듯했어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 후로 다시 편지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겐 늘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쯔 슬픈 이야기도 있었는데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나 친구랑 싸운 이야기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감정들을 엿볼 수 있는 편지들이 수북해서 늘 감사했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슬픈 편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한 소방관이 돌아가신 이야기였는데 그 소방관 아저씨의 아들은 아빠가 멀리 해외로 나갔다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고 편지를 썼더라구요.

갓 한글을 배워서 한 글자 한 글자 아빠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담긴 편지를 5살 아이가 보낸 거예요. 그걸 읽었을 땐 저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마터면, 귀한 편지가 다 젖을 뻔 했어요.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기쁜 일, 슬픈 일을 담은 편지까지. 언제나 넘칠 듯 가득했던 나에게 점점 편지가 뜬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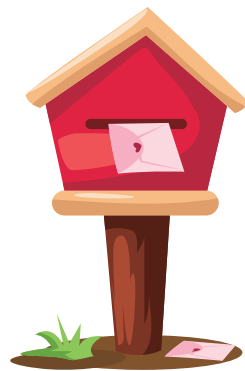
10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간혹가다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옛날 감성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고맙기도 하구요.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깐요. 나는 내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오늘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과 내가 읽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떠올려 보았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별이 빛났어요. 저 별엔 소방관 아저씨가 살고 계실까, 그런 상상도 해보았었어요.

하지만... 그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 얼마 전,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서 있던 사거리의 그 빨간 우체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들어 이 이야기를 써 보았습니다.



제비야, 나의 작은 마음 선물을 전해줘



초등 고학년

김유환



우리 할머니께서는 몸이 약하셔서 우리 가족이 할머니께서 필요하실 물건을 종종 보내곤 한다. 청소기부터 약, 옷, 음식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은 엄마만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내 할머니이니 나의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엄마가 택배 포장할 때 조금씩 도와드린다. 나도 조금 철이 들었나 보다.

사실은 처음부터 할머니께서 몸이 약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건강하셔서 나와 형과 같이 바다도 놀러 가고 일출도 보면서 추억을 많이 쌓았다. 그런 할머니께서 언젠가부터 몸이 많이 편찮으시게 되었다. 많이 약해지셨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손 편지를 써서 할머니께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면 기뻐하시며 더 빨리 나오실 것 같다. 그래서 꼭 다음번엔 엄마가 택배를 보내실 때 편지를 넣을 것이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지 못해 아쉽다고 하신다. 아픈 곳이 싹 나오신다면 여행도 같이 다닐 것이다. 엄마가 간혹 할머니를 뵈러 가지만, 나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전처럼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 이런 마음을 문자나 전화 말고 손 편지로 솔직하게 전해드릴 것이다. 할머니가 나에게 답장을 써 주신다면 그 기분이 정말 짱할 것 같다.

할머니의 글씨체는 어떨까? 내 글씨체는 가끔은 한석봉이지만 대부분은 꼬불꼬불 라면같다. 할머니께 쓸 때는 당연히 한석봉 버전으로 쓸 것이다.

반면 건강하신 우리 외할머니께 자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싶다. 친할머니보다 더 멀리 계신 외할머니께 나의 소중한 일상들을 전하는 편지를 쓰면 엄청 기뻐하실 게 분명하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여도 정성이 담긴 나의 편지를 읽으며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 우체국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 뼘은 더 큰 것 같아서 뿌듯하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까지 해 볼 것이다. 이 글이 바로 '증인'이다.

나는 양천도서관 옆에 있는 우체국 앞을 종종 지나가는데 출발하는 트럭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할머니께 가는 택배도 저 트럭으로 가겠지? 내 정성도 조금 들어간 택배. 다음엔 내 편지도 같이 갈 거야. 집배원 아저씨, 저희들의 사랑을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곁에 편지로 택배로 우리들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의 상징은 날쌔 제비다. 서울에서 제비를 본 적은 없지만 시골에서는 몇 번 본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 귀한 제비에게도 부탁을 해본다.

“제비야, 나의 작은 마음을 우리 할머니께 잘 보내주렴.”



빨간 우체통을 학교마다 부활시키자!



초등 고학년

정 화 준



요즘 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어린이들의 한글 실력도 더 낮아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문자로 장난과 비속어가 있는 짧은 글을 주고받는다. 장난스럽게 채팅만 하다 보면 우리말이 점점 망쳐질 것이다.

하지만 손 편지가 다시 많아지고 손 편지의 중요성과 정성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 사람들의 글쓰기 실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빨간 우체통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이 손 편지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손 편지를 많이 쓰게 되면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감성이 발달하고 험한 말도 줄어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손 편지에 익숙하게 되면 편지에 진심을 담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더욱 친밀해 것이다. 옛날에는 매일 매일 일기를 쓰고 학교에서 그것을 봐주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편지는 매일 쓸 수 없으니 2주에 한 번 정도면 어떨까.

그러나 요즘처럼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에 단지 교육만으로 손 편지가 익숙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체국을 홍보하고, 우체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다 편리하게 해야 한다. 편지를 쉽게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회사 등의 공공장소에 우체통과 편지를 받는 곳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눈에 자주 띄어야 실천이 쉬워진다. 그러면 전학 간 친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몰라도 학교와 반만 알면 편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 우체통에서 친구네 학교 우체통으로 가는 것이다. 또한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동료의 회사 이름과 직책만 알아도 편지를 쉽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편지 쓰기를 멀리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편지를 많이 쓰는 직원에게 '레터 보너스'를 주는 것이다. 편지를 쓰면 글쓰기 실력 향상,

따뜻한 정서의 발달 등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내게는 미국에 발령이 돼 텍사스에 가신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텍사스의 땀별 아래에서 근무를 하신다. 더구나 텍사스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진심이 담긴 손 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는 전보다 힘을 더 많이 내실 것 같다. 문자는 금방 쉽게 간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을 반도 담지 못한다. 손 편지는 쓰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전해지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감동도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지금 잠깐 아버지께 대한 글을 썼는데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것을 보니 글의 힘이 정말 크다.

학교마다 빨간 우체통을 부활시키자. 아이들에게 손 편지를 쓰도록 알려주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잃고 있는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감동과 정성도 되살아 날 것이다.



그림대회 도전한 나를 도운 우리 동네 우체국의 친절함



초등 고학년

나 올 이



1. 프롤로그

누군가 아무도 없는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고 사라졌다. 그 포스터의 내용은 미술관에서 그림 대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거리를 걸어가다 그 포스터를 발견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항상 그림 대회가 열리는 것을 알면 꼭 참가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대회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음식과 관련한 추억에 관한 대회였다. 나는 한 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2. 나의 도전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 작품을 내는 가야 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가지 일로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달력을 보고 놀란 나는 급히 미술 도구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체국은 6시에 문을 닫는다. 그렇다면 나는 5시 30분까지는 다 그려야만 했다. 나는 급한 대로 최대한 속도를 올려 그리기 시작했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열심히 그렸다. 물론 잘 그렸다.

3. 우체국의 친절함

‘휴...! 드디어 다 끝냈다!!’

열심히 그리다 보니 어느새 그림은 완성되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생각했다.

‘지금 가도 괜찮으려나?’

급한 마음에 나는 허둥대며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아무 버스나 잡아탔다. 나는 흘러가는 시간을 보며 전전긍긍했다.

‘오아! 몇 분 안 남았잖아!’

아직 15분이 남아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숫자 5만 보일 뿐이었다.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면 나의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 나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문 닫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문을 닫기 직전에 우편물을 부치러 온 나를 직원이 과연 친절하게 대할까?’

‘누구에게 우편물을 부탁해야 하는 걸까?’

‘초등학생인 내가 우편물을 과연 잘 보낼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이 머리를 꽉 채우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걱정하게 되었다. 드디어 우체국에 도착한 나는 당황하고 말았다.

사실 나는 한 번도 우체국에 가본 적이 없었다.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문을 닫기 직전이라 어쩌면 우편물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체국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때 놀랍게도 한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도움을 받다니,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직원분은 너무 친절하게 내 그림을 척척 포장해 주었다. 포장한 그림을 들고 창구에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러 갔다. 아까 도와주셨던 직원분께서 이 그림은 등기로 보내야 한다면, 종이에 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어서 창구로 가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당당히 말했다.

창구에 있던 직원분이 지금 바로 우편은 못 보내지만, 바로 월요일에 출발한다고 했고 기한에 맞춰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그 말에 나는 무척 안심했다. 그리고 그림이 잘 보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다. 우체국을 나오면서, 나는 우체국에서 내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복적거리면 많은 손님 맞이하느라 힘들 텐데 한사람, 한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초등학생인 나까지 신경 써 주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 처음 태어난 방만한 우체국 직원들이 존경스러웠다.

4. 도전한 결과

며칠 후, 메일이 왔다. 그림 대회 예선에 탈락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너무 아까웠지만 우체국에서 맛보았던 감동과 친절함에 위로를 받았다. 생애 처음 갔던 우체국, 그곳에서 느꼈던 기분. 그것은 1등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이었다. 나는 그림 대회의 결과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다시 한 번 우체국에 가보기로 했다. 전에 맛보았던 기분을 다시 맛보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전화, 문자보다 우체국에서 부치는 편지를 자주 이용하고 싶어졌다. 편지 말고 선물도 부쳐보고 싶다. 우체국 직원분들, 존경합니다!!



순간이동 우체국 (순SOON국)



초등 고학년

이종운



“어서 오세요~ 순간이동 우체국, 순국입니다.

지문을 찍고 배송지만 입력하시면 3분 만에 택배를 전송해 드립니다!”

친절한 안내봇이 안내를 하고 있다. 이곳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순간이동 우체국, ‘순국’. 어디든 순식간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다.

훈식은 북한에 계신 왕할머니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한다. 바로 가족사진과 남한의 음식들이다. 훈식은 할머니를 한 번도 뵈 적이 없었지만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사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얼굴을 이제 안다. 꽤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이번에는 훈식이 보내려고 한다. 안내봇에게 박스를 내밀었다.

“평양에 계신 최순지 할머니께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렇군요. 깨질만한 건 없고 무게는 2.7kg. 집안까지 바로 배송됩니다.”

안내봇은 무게를 바로 감지했다. 그리고는 ‘SOON’이라고 적힌 순간이동 택배 기계에 선물 박스를 넣었다. 안내봇이 버튼을 누르자 전자레인지처럼 빛을 내더니 선물 상자가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빛이 더욱 강해졌다.

훈식은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박스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안내봇이 훈식을 보고 말했다.

“순간이동 택배 전송을 완료했습니다. 결제는 고객님의 우체국 통장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식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과연 왕할머니께 택배가 잘 도착했을까? 도중에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됐으면 어떡하지?

북한까지 3분 만에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훈식이는 그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할머니에게서 고맙다는 문자가 왔기 때문이다. 훈식이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왕할머니를 상상하며 흐뭇했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강한 바람이 느껴졌다. 바람이 느껴지는 쪽으로 돌아보니 드론이 박스 한 개를 들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우체국 천장에 있던 둥근 유리창이 스르르 열렸다.

“청진에 있는 이호진 할아버지께 드론으로 최단 시간에 택배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이 쩍싸게 떠올라 하늘 멀리 사라졌다.

지금 보니 이 우체국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안내봇을 수리하는 사람, 안내봇과 얘기하는 사람, 드론으로 택배를 전송하는 사람 등 우체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세상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는데 우체국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듯했다. 순국은 단 3분 만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과 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마음까지 배달되었다.

그리고 순국을 나오면서 훈식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 앞에는 안내봇과 이야기를 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아기 고양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작은 고양이를 화성에 있는 우리 오빠한테 보내주세요!”

그러자 안내봇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 고객님의 우주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걸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보내 드릴게요.”

이제 순국의 인기는 우주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외계인들도 우리의 눈부신 진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 끝 >

따뜻한 나의 친구



초등 고학년

김지유



나는 이제 75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한때는 외교관으로 열심히 살았지요.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출장도 가고 모임도 가고 하였지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도심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집 앞에는 텃밭도 있어 고추, 상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 여러 가지의 작물들을 다 키우고 있어요.

요즘 그것들을 수확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를 했는지 오늘은 몸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그 시골의 깨끗한 공기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직접 못 가고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저기요. 거기 우체국이지요.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고객님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로봇 집배원은 매우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지요. 몇십 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몇 분 뒤에 택시 우체국이 도착했지요. 택시 안에서 로봇 집배원이 방긋 웃으며 내렸답니다.

“고객님,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무엇을 부치고 싶으세요? 또 누구에게 보내드릴까요?”

“저기 고구마는 서울의 딸에게, 저 고추와 감자는 부산의 친구에게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혹사... 내 말벗이 돼 줄 수 있나요? 잠깐이면 되는데...”

“고객님, 물론입니다. 전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는 한동안 로봇 집배원에게 말을 걸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떠들었어요. 택시 집배원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도 다 말대꾸를 해주었어요. 같이 웃어주었구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지요.

“저는 이제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주세요.”

“그래요. 조심히 잘 가요.”

택시 우체국이 가니까 무엇인가가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인간 삶의 일부인 것을 이제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며칠 뒤, 택시 우체국이 나를 다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따님이 손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휴 이렇게 고마울 수가.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네요.”

“별말씀을요. 다음에 또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그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딸의 손 편지와 선물들은 정말이지 감동적이었어요. 오랜만에 딸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내년에도 농작물을 많이 수확해서 딸에게 보내고 로봇 집배원과 재미있는 대화도 나눌 겁니다. 한 해 한해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허전하고 외로운 이 시골 한복판에 말하는 친구 하나 두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엄마에게 쓴 편지



초등 고학년

문서준



요즘 마음과 다르게
엄마에게 버럭 소리 지르는 나.

그래도 환한 미소로
잘해주는 우리 엄마.

소리 지르고 난 후에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런 내 마음
편지에 또박또박 적어
예쁜 편지 봉투에 소옥 넣는다.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
빨간 우체통에 쓱 넣었더니
내 마음 잘 알았다는 듯
맨드라미꽃처럼 반짝인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우체부 아저씨를
매일 기다리는 나
이번에는 행복이
파도처럼 시원하게 밀려온다.



우체부 아저씨의 끈기



초등 고학년

권은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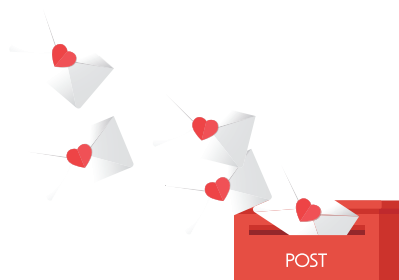


파란 외투에 파란 모자
파란 바지에 가슴에 새겨진 빨간 제비마크
와~ 우체부 아저씨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편지가 왔다.
우체부 아저씨는
핑핑 눈이 쏟아져도
꼭 목적지까지 배달을 한다.

우체부 아저씨에서
끈기가 뽐뽐뽐 뽐어져 나온다.

우체부 아저씨의 끈기 편지에 담아 받고 싶다.



기쁨을 주는 편지



초등 고학년

문예원



햇빛 뜨거운 날
밭일 하시는 할머니
그때
부르릉 소리 내며 다가오는
빨간 오토바이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할머니 손에 쥐어드린
편지 한 장
검정색 글씨가 꽃씨처럼
가득 찬 종이를 보며
활짝 웃으시는 할머니
편지를 읽고
땀이 소옥 들어간다.
편지를 전해준 오토바이도
기분이 좋은지
부르릉 부르릉 소리 내며
신나게 다른 동네로 간다.





편지와 우체통

초등 고학년

이도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끔가다 보내는 편지

어릴 땐 항상
우체통을 찾곤 했다.

그때만 해도
우체통 근처에
깨끗하고
빨간빛이 났는데

요즘엔 녹이 슬고
우체통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

분명 어릴 적에
우체통 입에 편지를
숙 밀어 넣으며
설렘 가득이었는데
지금은 잘 찾지 않게 된다.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한테 마음을 전할 때는
편지지에 정성을 담아
우체통은 찾아간다.
그리고 우체통에 얹은 먼지도
싹싹 닦아준다.





꿈꾸는 우체통

초등 고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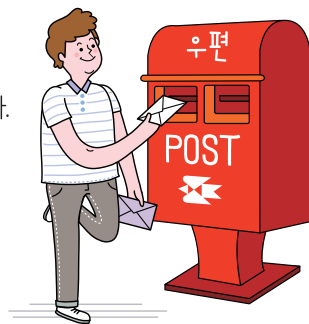
김유주



만지면 덜그락 덜그락
소리가 나는 낡은 우체통
'저기에 편지 하나 넣을 수 있을까?'
몇 십 년 동안, 이 길을 지켜온
낡고 오래된 빨간 우체통

이제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그래도 가끔 우체통에게
편지를 넣어주는 여자아이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에
진심과 정성이 담겨
받으면 감동할 것 같다.

낡은 우체통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는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이 진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잠에 든다.





제 마음도 배달이 될까요

초등 고학년

기 하 운



땀이 비처럼 흐른다는 말이 실감 난다. 우리 집 앞에 늘 나타나 택배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아저씨는 볼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신다. 내 생각으로는 늘 힘드신 몸을 이끌며 배달하는 것 같다. 택배를 배달해 주실 때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등의 말을 건넨 적은 있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없다. 그래도 아저씨는 평소에 되게 친절하시다. 나는 요즘 집배원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아저씨, 힘드실 텐데 늘 택배를 배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소민이에게 제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전해주시실 수 있나요?”

최근 나는 마음의 상처를 힘겹게 매달고 있다. 2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소민이가 내게 문자 메시지로 절교하자고 보낸 것이었다. 소민이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나한테 떠밀려 온 이상한 오해 때문에 나와 친구 사이를 영원히 손에서 뗀 것이다. 나는 말만 절교했지, 속은 절대 아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그건 오해라고, 이제 그만 화해하자고 보낸 나는 이미 포기했다. 왜냐하면 소민이가 내 문자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내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 같다.

그래서 소민이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써서 보낼 생각을 했다. 소민이는 손으로 쓰거나 만들어서 준 것이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나는 소민이를 안다. 내 생각이지만 소민이는 분명 내게 답장을 보내거나 문자로 답할 것이다. 나는 소민이에게 편지를 쓸 때 소민이가 좋아하는 스티커와 선물도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집배원 아저씨께서 내 마음을 소민이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빌고 또 빌 것이다. 소민이네 집과 우리 집은 서로 멀지는 않으니까 집배원 아저씨도 조금은 덜 힘드실 수 있겠다.

나는 집배원 아저씨께서 내 편지를 전해 주신다면 아저씨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집배원 아저씨, 제 편지를 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부디 아저씨가 저와 제 친구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행운의 고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소원을 인생에서 딱 한 번 쓴다면 그날 쓸 것이다. 그래서 소민이와 나의 절교를 소민이가 스스로 끊어서 내게 문자를 보내게 하고 싶은 것이다. 하아,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다시 절친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

친절한 집배원 아저씨께서 나와 소민이의 우정을 다시 이어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만큼 기쁠 것이라는 뜻이다. 아저씨의 친절이 마법이 되어 얼어붙은 소민이의 마음을 녹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만약에 우릴 이어주셨다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저씨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면 난 집배원 아저씨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저씨, 저와 소민이의 우정을 다시 끈끈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늘 친절하신 집배원 아저씨는 빙긋이 웃으실 것이다.

지금 나는 예쁜 편지지 한 장을 펼쳤다. 자, 이제 이 편지 안에 나의 진심을 모두 담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 간절한 마음 자체를 소민이에게로 보내고 싶다. 편지를 쓰다가 혹시라도 또 오해가 생기지 않게 진실한 내 마음 자체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



사계절 우체국

초등 고학년

장혁주



봄에 만난 너를 기억해
 엄마 손 잡고 처음 갔던 그곳
 썩 향기 가득 봄나물 택배
 활짝 웃는 우체부 아저씨
 그 어느 봄꽃보다 아름다워

여름에 만난 너를 기억해
 기나긴 장마가 지루할 썸
 전학 간 친구가 그리워 쓴 손 편지
 여름방학 너를 보러 간다고
 빗속을 뚫고 내 마음 전해주네

가을에 만난 너를 기억해
 사각사각 낙엽 춤추는 코스모스
 빨간 우체통과 친구가 되어
 가을 향기 날리느라 바쁘네
 풍성한 가을은 늘 바쁘지만 하네

겨울에 만난 너를 기억해
 첫눈이 오는 날 모두가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
 따뜻한 마음들이 쌓인 눈을 녹여
 다시 봄을 부르며 노래하네

사계절 울고 웃고 추억을 만드는 너
 엄마의 품속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던 너
 사계절 우체국은 우리의 가족이라네





초콜릿 편지

초등 고학년

송 선 우



친구와 싸운 날
나는 초콜릿처럼 달콤한 편지를 써.
부모님께 혼난 날
이번엔 초콜릿처럼 쓴 편지를 써.
모처럼 기분이 슬픈 날
나는 또 이 기분을 처음처럼 생각하며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쓴 편지를 써.

편지를 든 두 손들의 온도가
달콤하고 쓴 초콜릿 편지를
사르르 녹여서
나의 얼굴에도
사람들의 얼굴에도
마치 초콜릿을 먹은 것처럼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가
전해 준
달콤하고 쓴 그런
초콜릿 편지가
가족들의 두 손에
친구들의 두 손에
사람들의 두 손에
전해지면 말이야.





행복 바구니

초등 고학년

김우현



급한 발걸음
엘리베이터를 향해
쏟살같이 달리는 나
조바심이 솟아오른다.

지각하면 늘 이렇게
시간은 물 흐르듯 흐르고
동동거리며 서둘러야 하는
그 순간들 조바심이 차오른다.

어느 날 벨을 누른
우체부 아저씨

마주한 그의 눈
떠나는 엘리베이터 놓칠까
현관과 엘리베이터 버튼 사이
안달복달 오가는 우체부 아저씨

달빛같이 사라지는 시간을
원망하며 조릿대는 우체부 아저씨

급한 발걸음
편지 전하고 허둥지둥
엘리베이터 속으로

어느 날 벨을 누를
우체부 아저씨를 위해
사탕 바구니를 준비해 놔야지.

민트맛 사탕으로 피로 잠재우고
구름맛 사탕으로 여유 선물하고
백합맛 사탕으로 웃음 꽃피우고
나무맛 사탕으로 희망 선사하고

감사의 마음 드러야지.
우체부 아저씨는 자신의 역할을
슈퍼맨처럼 척척 해내고 있으니까.

< 참고 >

* 조릿대다 : 자주 조바심이 나서 마음을 놓지 못하다.

희망의 이름 ‘느린 우체통’



초등 고학년

김소울



안녕! 난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근처에 우뚝 서 있는 우체통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시에 있는 일반적인 우체통들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특히 편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 느려서 ‘느린 우체통’이라고 불린단다.

느린 우체통인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래?

내가 살고 있는 바다는 예쁘기도 하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더구나 사진을 찍으면 너무 잘 나오는 곳이라서 ‘인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지. 특히 주말이 되면 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나도 우쭐해져서 마음속으로 ‘브이’를 외치기도 해.

이렇게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난 그래도 명색이 우체통이잖아. 내 본분을 잊으면 안되기에 오늘은 편지를 얼마나 넣어주나 기다리기도 해.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초등학생을 보면서 귀여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편지를 보고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지. 작은 엽서를 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공감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한단다. 물론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이 쓰는 편지를 보고 있다고 상상조차 못 하겠지?

내가 기억하는 그날도 딸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듯 편지 쓰는 엄마,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던 대학생 등을 보며 미소 짓고 있던 그때.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휠체어를 밀며 나에게 다가왔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 앞에서 예쁜 포즈로 사진을 찍지도 않고, 초등학생인 듯 보이는 딸아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꼭 잡은 채 나를 한참 바라만 보더니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딸아이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는 건강해진 딸과 함께 걸어서 다시 이 바다에 오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담긴 내용이었어. 그때 난 잠시 '내가 왜 느린 우체통일까'라는 자책을 했었어. 좀 빠른 우체통이었다면 이 편지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운 마음 가득이었지.

하지만 이내 깨달았어. 난 희망 가득, 소망 가득 담아서 무거운 편지를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느릴 수 밖에 없는 우체통이었던 거야.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긴 만큼 희망의 크기도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손 편지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 등이 더 편해진 요즘 세상이지만 아직도 느린 우체통인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아직 수많은 희망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겠지.

난 오늘도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 나를 통해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언젠가 휠체어 대신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찾아올 딸아이를 기다려 보려 해.





우체국 나들이

초등 고학년

이 선 울



학교생활을 힘차게 달리다 보면 항상 매년마다 꿀 같은 방학이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달리 엄마, 아빠께서 바쁘셔서 방학의 절반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집에서 자주 보낸다. 우리 할아버지 댁은 내가 사는 부천과 달리 편의점도 찾아볼 수 없는 시골 농촌이다. 그래서 나는 구불구불한 산을 넘어 4시간 후에 도착했다. 나는 엄마, 아빠께 '편지를 보낼게.'라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하는 것만 남았다. 작년에 심었던 방울토마토와 고구마를 따거나 등산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우체국에 가는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시골을 조금 나와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갈색 벽돌을 입은 우체국이 보인다. 나는 모레, 엄마 생신이기에 엄마께 드릴 편지를 한 손에 꼭 붙들고 우체국에 들어서자 아늑함이 나를 감싸 안았다. 바쁘신데도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내 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나는 할아버지와 편지의 주소를 알려드리러 직원분께 가서 열심히 주소를 말해드렸다. 그리고는 편지와 함께 할머니랑 같이 만든 고추장의 무게를 잰 후 엄마께 드리는 선물은 박스를 힘들게 옮겨주시는 분께 전해졌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릴 때마다 우체국을 오지만 언제나 변함없고 따뜻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 후 편지와 선물을 부치고 나오면 우체국 앞에는 푸른 울창한 나무들과 고운 무궁화들이 피어있었다. 지난번과는 달리 우체국은 다른 곳에 온 느낌이 들었다. 특히 키다리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줄을 서고 있고 뚝뚝뚝 자동차들이 어geg동무를 하고 있는 도시와는 달리 따스한 햇빛아래 노랗게 익어가는 벼와 재잘재잘 수다 떠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들이 어우러져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빠져있는 듯했다. 난 항상 바쁘고 복잡하던 도시 우체국보다 조용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 차분한 시골 우체국에 오면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사계절이 지나도 직원들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듯 우체국은 항상 나를 기대에 빠지게 만들 만큼 아름답게 변하는 것 같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봄은 벚꽃나무들이 아담한 벚꽃들을 피우며 춤추고 여름은 푸른 나무들이 갈색 벽돌 우체국에 어우러져 우체국을 더 고풍스럽게 해준다. 또한 볼 것 많은 가을은 은행나무와 벚나무가 어울려 은은한 풍경을 맞이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하얀 눈들이 나무에 내려앉아 고요하지만 특별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우체국에 대한 나의 새록새록한 추억은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있다.

우체국을 보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봄에 살고 있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어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생활에는 여름도 가을도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내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아마 찰랑이는 생머리에 웃도 엄마처럼 멋있게 입고 있을 것이다. 생각과 말하는 목소리도 달라지겠지만 언제나 붉은 벽돌로 자신을 알리고 있는 우체국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라난다면 소나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





빨간 우체통

중고등부

설하람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정답게 서 있는 빨간 우체통

어제는 철이 누나 청첩장을
오늘은 영희 할머니 하늘 가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편지를 받을 때는
가슴이 철렁거리고
멀리 사는 친구의 편지를 받을 때엔
우체통의 마음은 콩다콩 뛰어요.

오늘은 어떤 편지 왔을까?
지나가는 바람도 기뻐거리고
참새도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보네요
우체통의 얼굴이
빨갭게 빨갭게
달아올랐어요.





집에 가는 길에

중고등부

조윤서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많은 건물들 사이로
숨어 있는 빨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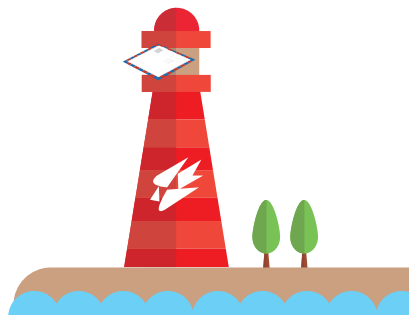
나는 보고 있던 휴대폰을
잠시 동안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작디작지만
따스한 붉은 빛을 내뿜는
등대를 마주 바라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비춰주는 등대
복잡한 건물 사이로
소식을 전하는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의
작고 큰 사연들을
감싸주는 따뜻한 불빛

그런 맑고 온화한 불빛을 비춰주는
빨간 등대를
잠시 보고 갑니다.





마음들의 길목

중고등부

선민서



우체국에는 언제나 마음들이 오고 간다.

사랑하는 이에게 빛나는 사랑을 전하는 편지에 담긴 마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에 담긴 마음,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날을 축하하는 편지에 담긴 마음 같은 물빛처럼 고운 마음들은 언제나 우체국을 거쳐 누군가의 마음에 춤을 추며 내려앉는다.

그러나 편지에는 항상 좋은 마음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협박 편지에 담긴 마음, 이제 뒤돌아서자는 말을 담은 이별 편지에 담긴 마음, 끔찍이도 아꼈던 누군가의 부고를 알리는 편지에 담긴 마음 같은 잿빛의 먹구름 같은 마음들은 주위를 스쳐만 가도 냉기가 느껴진다.

그렇게 마음들이 우체국의 유리문을 넘나든다. 그런 하루들이 끊임없이 저물어 가고 우체국에는 더욱더 많은 이들의 더욱더 많은 추억이 우체국을 무너지게 할 만큼 매섭게 쌓여간다. 그래서인지 우체국은 지혜로운 어느 노인의 깊게 파인 눈가 주름처럼 정체를 모를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추억이 주변과 그 내부를 부유하는 우체국. 그곳은 근처를 가는 행위만으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모두의 가장 찬란하고 밝았던 순간과 끝없이 암울하고 짙은 먹색을 띤 순간을 동시에 보는 일이 불러오는 그 기분은 우체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 우체국을 꼭 안아주고 싶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봄, 그리고 우체국의 광경



중고등부

함 유 준



후덥지근한 여름 우체국의 광경.

우체국 앞 나무는 푸른 손바닥 펼쳐 그늘을 만들어 주고,
우체국은 사람들을 위한 남극처럼 에어컨을 세계 틀어놓는다.

매미는 나무 밑에서도 더운지 찌르르르 시끄럽게 운다.

숲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바람이 부는 가을 우체국의 광경.

우체국 앞 나무는 손님맛이를 위해 몸을 빨갱게 치장하고,
우체국은 슬슬 쌀쌀해지는 날씨에 나무에 걸옷을 입혀준다.
손님맛이가 끝난 나무의 옷 조각 떨어뜨리는 소리 사박사박

한 해의 끝을 마무리 짓는 겨울 우체국의 광경.

우체국 앞 나무는 다람쥐와 풀벌레들의 잠자리가 되어주고,

우체국은 살을 에는 추위 속 모두의 난로가 되어준다.

모두 잠에 든 거리에는 오직 뾰득 뾰득 사람들 발소리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따스한 봄의 향연 우체국의 광경.

우체국 앞 나무는 봄의 바람에 맞춰 손을 흔들어 모두를 반기고,
우체국은 봄의 설렘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이곳저곳 전해준다.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속 정이 담긴 쉼터 우체국.

오지다!



중고등부

백희원



난
네 품속에 쓰옥 들어가
길지 않은 나의 인생에
널 몇 번 만났었다.

넌
선택 되어 진 만큼
믿고 인정받는 만큼
살아내고 있었다.

세상 속에서
왜 네가 존재해야 하는지
묵묵히
그 자리를 오지게 지켜내고 있었다.

넌
그렇게 또 살아내고
그래도 또 살아가는
네가 품은
모든 그대들에게

기꺼이
희망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넌
네가 품은 그대들의 삶에
각기 다른 자국을 남기며
또 다른 그대를 찾아
길을 나설 때
충분히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저 있을 뿐인 것처럼
묵묵히
희망으로
빛으로
오지다!



MZ세대 청소년의 우체국에 관한 고찰

중고등부

위 다 인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칭 'MZ(Mad Z(g)enius)'인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체국에 관한 고찰이다. 우체국은 청소년에게 그다지 익숙한 장소는 아닐 것이다. 나만 해도 그러했다. 어릴 적 엽서를 모으면 장난감을 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몇 번 우체통이나 써봤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택배를 보낸다던가 우체국을 통해 편지를 받는 경험은 없었다. 잠깐 편지? 지금이야 인터넷과 휴대전화 덕분에 간편하게 먼 거리에서도 연락을 주고받지만 옛날에야 통신 수단은 편지와 전화 뿐 아니었다. 심지어 전화기도 없는 집이 많았으니 그 시절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단연 편지가 아니었다. 만화에서나 부모님이 간간이 들려주는 옛날얘기에서도 빨간 모자를 쓴 집배원이 편지를 자주 전달해 주지 않던가. 이렇게 보면 글로서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항상 우체국이 있는 것 같다. 한 마디로 말해 우체국은 마음을 전달해 주는 곳이라 할 수 있을까. 짝사랑 상대를 떠올리며 밤새 지우고 쓰길 반복한 러브 레터, 저 멀리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식한테 꼭꼭 눌러 쓴 편지, 군인에게 보내는 위문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모두 우체국이다. 여기까지 내 생각이 미치자 그 시절의 아름다운 사연들이 머릿속에서 자연히 그려진다. 요즘 세상에서 우체국은 이렇게 활용되는가 싶기도 하다. 옛, 잠깐만 그렇다면 마음이 담긴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이래서 우체국이 필요한 모양이다. 간간이 동영상 플랫폼 알고리즘은 나에게 군대를 간 애인에게 택배를 붙이는 영상을 보곤 한다. 자신이 직접 만든 간식거리나 애인이 좋아하던 과자, 사진이나 근황이 담긴 편지들을 넣어 보낸다. 그 뿐인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지인에게 김치 혹은 고추장이나 라면을 넣어 보내주기도 하고 말이다. 이쯤 되니 우체국은 몸이 먼 이들에게 마음을 가까이 해주는 존재라고 확정지어도 될 것 같다. 라고 나는 작년까지 그렇게만 생각했다. 우체국에 한 가지의 기능이 더 있을 줄은 몰랐다.

나에게 여태껏 우체국은 솔직히 말해 배달해 주는 공공기관에 그치는 것이었다. 택배 배송 회사의 공공기관 버전이라고만 생각한 어리석은 과거의 나였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이 되고서 나는 졸린 상태로 사회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가장 안전하게 저축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 대충 이런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통해 잠귀신을 떨쳐 내기 위해 나는 수많은 생각을 했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지. 그렇다면 모든 은행에 4천9백99만 9천999원씩 예금을 넣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지만 재산이 한국에 있는 은행 회사에 다 넣고도 남으면 어떡하지? 아 농협에 넣어야 하나? 아니지 농협도 똑같지 않던가? 덕택에 잠귀신은 확실히 물러갔으나 머릿속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 때문에 어지러웠다. 다행히 선생님은 금방 답을 말씀해 주셨다. ‘정답은 우체국이야. 우체국은 돈도 저축하지.’ 그 순간 나는 지금껏 알아 오던 진리가 와장창 깨졌다. 우체국은 편지나 택배만 부쳐주던 곳이 아니었나, 우체국이 정말 은행 역할도 한다고? 죄송스럽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심이 갔던 나는 그날 학교를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 진짜 저축도 하는구나! 충격적인 사실이 번개처럼 뇌리에 꽂혔다. 그때부터 우체국에 대한 진리는 완전히 깨졌다. 좋다, 여기서 한 번 정리를 해보자. 우체국은 편지와 택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역할도 한다. 게다가 부도가 날 일 없는 공공기관이라니. 믿을 것 없다는 요즘 세상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우체국인 것 같다. 돌고 도는 주제 속에서 드디어 진짜 주제에 도달했다. 만약 내가 우체국장이 된다면 우체국장의 권한을 이용해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우체국 홍보 슬로건으로 ‘국밥보다 든든한 우체국밥’ 제작하고 싶다. 이런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체국 문 앞에 서면



중고등부

고은우



우체국 문 앞에 서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사람들의 발길과 목소리가
소란 속에 녹아든다.

우편물이 오가는 길목엔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다
작은 편지지에 담긴 마음들이
서로에게 닿으며 사랑이 된다.

희망과 기다림이 어우러진 곳
우체국 문 안은 따뜻한 미소로 가득하다.
나란히 늘어선 작은 우체통이
이야기들로 가득 찬다.

편지 한 장
한 장이
소중한 인연을 맺는다.
매일 쌓이는 그리움과 기대
우체국 문 앞에 두고 떠난
마음들.

우체국은 작지만 크다.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다.
소중한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이
우체국 문 앞에서 생겨난다.



우체통의 크리스마스



중고등부

하정연



우리 동네 횡단보도 앞 우체통 하나
길을 건너기 전 지나가는 이 빨간 집은
말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슬픈 화산이다 초록 불에 늘 지고 마는,
사람들이 담뱃재만 소복이 쌓아놓은
아픈 마음이다.

두근두근 화끈화끈 늘 불타오르는
새빨간 불덩이에 마음 하나 쓱 넣는다.
친구들에게 전해질 종이 한 장 한 장은
초록 불이 켜지는 순간 메리크리스마스!

넘쳐서 터질 것 같던 새빨간 마음을 타고
모든 기억 추억 순간이 헤엄치고 떠다니며
더 큰 마음 모아 모아 불화산을 간지럽히면 땡,

빨간 우체통에 햇살 하나 떨어지고
바람이 담뱃재를 밀어내는 이 순간,
크리스마스다 축제다.

나는 우체통에게 말을 건다.
나에게 쓰는 편지 하나 넣는다.
우체통의 조잘거림을 기다리며 길을 건넌다.



어떤 이에게

중고등부

김민준



우체국은 전한다

어떤 이에겐
행복을

어떤 이에겐
슬픔을

어떤 이에겐
희망을

오늘도 우체국 오토바이는 바쁘다
여러 감정이 담긴
편지를 전하러





우체부의 하루

중고등부

정원준



때로는 설레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우체부의 고단한 하루 안에는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마음이 녹아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길 닿는 곳마다
소중한 마음들이 전해진다
마음은 글이 되고 물건이 되어
주인에게 향하고자 설레며
나들이웃을 입는다.

주인에게 닿기 전
행여 다칠까 길을 잃을까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우체부는 살피며 함께 한다.

먼 길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닿지만
오직 우체부만이 머물지도 쉬지도 못한 채
또 다시 고단한 발길을 돌린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숨 한 번 고르지 못한 채
해가 저물도록 우체부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오늘도 우체부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가고
내일도 또 다시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에 또 다시 힘을 낸다.

우체부의 하루가 있어
우리가 서로 달고 또 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할아버지와 우체국

중고등부

황은비



저에게는 우체국이 그저 우편이나 배송물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저희 할아버지의 생애가 깃든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진주우체국 창구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편주임, 우편계장, 창구계장, 업무과장, 우체국장 등 오랜 기간을 우체국을 보내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우체국과 인연이고, 천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초장동 우체국이 세워질 때,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자리를 알아보시고 다양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공로를 알아주시고 2012년에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뉴스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체국에 근무했던 때를 회상하시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집니다. 또 자신이 일했던 곳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 근무하셨던 자리가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자리를 즐기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과 할아버지 댁이 멀어서 방학이나 추석이나 아니라면 자주 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 바로 보진 못합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기사를 보곤 하는데, 사진 속의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해맑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면, 저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지금 해야 하는 공부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우체국 일을 통해서 저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체통의 꿈



중고등부

문정윤



조용한 시골 마을의

빨간 우체통

우체통 아래에 피어있는 민들레

씨앗을 날려 안부 인사를 하고

푸른 하늘을 나는 빨간 제비가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전해준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은 편지를

우체통 안에 쓰옥 넣는다.

순한 봄바람이 하얀 목련을 매만지면

달빛에 목련 꽃은 더 등불을 밝히고

우체통은 하루 종일 고단함을 내려놓는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색칠한 어두운 밤

우체통은 하늘을 바라보며

난 오늘도 빨간 우체통이라 행복했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빨간 우체통은

편지에 마음을 담고 꿈을 꾸다.



편지 한 장짜리의 마법

중고등부

이서린



사람이 살다 보면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그리 오래 살아본 편이 아닌 나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다.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을 때, 나는 소중한 친구 둘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물론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이 있지 않느냐. 딱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한 친구의 편지가 도착했다. 셋노랑고 뽕뽕한 편지 봉투는 고지서만 가득했던 우체통 안쪽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그 뽕뽕한 편지 봉투 속엔 안부를 묻는 편지와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있던 만화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넣었나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볼 때 느꼈던 조그마한 설렘과 편지를 읽으며 느꼈던 이름 모를 온기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연휴를 잘 보내라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생일 축하한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이 편지를 통하여 서로에게 전해졌다. 물론 편지를 뜯어보는 것도 기뻐지만, 편지를 쓸 때도 행복했다. '이 편지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이 편지를 보고 기뻐할까' 이런 생각들이 편지를 쓰는 나를 기쁘게 했다.

편지로 인해 나는 새로운 경험도 해볼 수 있었다. 우체국은 늘 부모님과 함께 갔지만, 부모님의 사정으로 함께 갈 수 없어서 나 처음으로 나 혼자 우체국으로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사용한 편지 봉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난 봉투에 맞춰서 적은 것뿐인데 이렇게 적으면 다시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하셔서 무척 당황했었다. 알고 보니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과 수신인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다행히 직원분께서 뒤쪽에 제대로 다시 적으면 괜찮다고 설명해 주셔서 무사히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 순간에는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다.

편지로 대화한다는 것은 그냥 대화하는 것이나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과는 다른, 그것만의 어떤 힘이 있다.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받아보거나 써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편지는 편지 봉투를 뜯을 때, 편지를 꺼낼 때 손에서 뽀뽀한 종이가 만져지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나를 설레게 할 수 있었다. 편지를 읽고 있으면 마치 어렸을 적 내가 가장 동경하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쓰다보면 전해주고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문득,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편지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구나, 이 편지 한 장의 이야기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마음을 전해요

중고등부

유 나 영



종이 한 장에 나의 마음 가득 담아
우체통에 넣는다.
다시 꺼내어 볼 수도
누군가 가져갈 수도 없는
비밀 가득한 우체통에.

이 편지는 우체부 아저씨의 땀을 타고 전해져
받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다시 종이 한 장에 받은 이의 마음 가득 담아
우체통에 넣는다.
그 감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 두꺼운 감동들이 섞여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섞여
이 세상은 하나의 감동으로 차오른다.
이 세상은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기다리는 중



중고등부

문시우



휴대전화를 어디에 둔 건지 또 사라졌어. 나는 세탁기에서 바지를 꺼내 주머니를 뒤집고, 책장 사이사이를 살살이 살폈어. 그러던 중, 책장 사이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어. 책장에 꽂혀있던 책은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듯 먼지가 쌓여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열어보았어. 그러나 책을 열어본 나는 휴대전화를 찾던 것도 잊은 채 한참을 책만 바라보았어. 그 책은 학창 시절 내가 편지와 함께 모으던 우표가 들어있는 우표수집책이었어.

한때, 우리 학교에서는 우표를 모으는 취미가 유행하고는 했어. 편지지에 붙은 우표부터, 우체국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기념우표들까지.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표를 모았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스마트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인터넷 메일도 pc방이나 도서관에 가야지 쓸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친구한테 연락을 하려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기를 써야 했는데. 그마저도 우리 집은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너도나도 우표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우표를 모으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당연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우리나라 우표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우표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해외라고 해봤자 삼촌이 계신 미국이었는데. 그때는 미국이라고 하면 뭐든 신기해하던 때라서 친구들은 미국 우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부러워하고는 했어.

내가 삼촌께 미국 우표를 받는 일은 간단했어. 내가 우표 모으는걸 아는 삼촌이 여름휴가로 한국에 와서 가끔씩 내게 우표를 주기도 했지만, 그건 특별한 날일 때나 그랬던 거고 보통은 미국에 있는 삼촌과 주고받은 편지지에 붙어있는 우표를 모았어. 삼촌과 편지를 주고받느라,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우체국에 갔는데. 나는 그때의 일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나는 삼촌의 편지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 담장 뒤로 오토바이 소리라도 들리면 나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가 우체국에서 온 오토바이인지 확인했지. 나는 매일 밤 삼촌이 보낸 편지를 기다리다 잠이 들고는 했는데, 그럴 때면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있었지. 편지를 받으면 괜스레 설레고 신났어.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즈음, 스마트폰이랑게 처음 나왔어. 스마트폰의 등장은 세상을 바꿔놓는 혁명이나 다름없었어.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목소리는 물론, 화상통화로 얼굴도 볼 수 있었어. 편지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나봐. 사람들은 이제 우표를 쓰지 않았고, 연필로 글씨를 써서 보내는 편지는 이제 답답하다고 했어.

연락하는게 편해졌으면 더 자주 연락하고 돈독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오히려 연락하는 게 쉬워진 지금, 미국에 있는 삼촌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어. 그리고 삼촌과 연락이 끊긴 것도, 내가 더 이상 우체국 오토바이를 기다리지 않게 된 것도 그즈음부터였어.

나는 책장에 먼지만 쌓이며 잊혀져 있는 우표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어.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편지를 배달했을 우표들. 나는 편지들을 하나씩 넘기며 삼촌과 내가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들을 떠올렸지. 문득 오랜만에 삼촌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지금 나는 전화나 이메일 대신 연필과 종이를 꺼내 들었어. 그리고 우표수집책에 모아두었던 편지지에 적힌 주소로 편지를 썼어. 이메일로 보내면 몇 초면 도착할 편지를 나는 우표까지 정성스럽게 붙여서 우체국으로 향해. 오래전 잊고 있었던 무언갈 마침내 기억해낸 기분이었지.

휴대전화를 찾는건 조금은 뒤로 미뤄도 좋을것 같아. 최소한 내가 보낸 편지의 답장이 올 때까지 말이야. 어디선가 우체국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너도 지금 이 소리가 들리니.

빨간 간판의 작은 집을 아시나요



중고등부

박은서



제비가 살고 있는 빨간 간판의 작은 집을 아시나요.

분홍 꽃보라도 덮지 못하고
초록 나뭇잎도 덮지 못하고
노란 은행잎도 덮지 못하고
하얀 눈보라도 덮지 못하는 빨간 간판이에요.

제비가 지키는 빨간 간판의 작은 집을 아시나요.

그 집은 빨간 행복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 집은 주황 사랑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 집은 노란 희망을 건네는 곳이에요.

제비가 이어주는 빨간 간판의 작은 집을 아시나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행복과 사랑과 희망이 꽃피우는

민음직한 제비가 살고 있는 빨간 간판의 집을 아시나요.



그곳에는 새빨간 우체통이

중고등부

이시연



그곳에는 새빨간 우체통이 있었다.

내 유년 시절의 추억은 육지에서부터 뚝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로부터 시작되었다. 섬마을 아이들이 으레 그렇듯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다니던 꼬맹이 중 하나가 나왔다. 엄마 손 박차고 갯가로 달려가 너울 치는 파도를 배경 삼아 조개껍데기를 치마폭에 주워 담고, 구슬치기하겠다고 보이는 족족 공벌레를 조심스레 손에 쥐던 꼬맹이. 사고뭉치. 말괄량이. 나를 따라다니던 칭호는 늘 그런 식이었다. 동네에는 나 같은 꼬맹이가 하나 더 있었다. 아마 일곱 살 때 일어났던 것 같다.

어느 때처럼 뛰어다니며 동네를 누비던 꼬맹이 둘은 새빨간 우체통 앞에 섰다. 짙은 빨간색. 입을 찹 벌리고 꼬맹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체통 앞에서는 괜스레 맘이 경건해졌다. 나는 우체통에는 용건이 없어 멀뚱히 우체통만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의 손은 다급했다. 공돌이 가방을 열어 뒤적뒤적하더니 표정이 확 밝아지는 순간은 꼭꼭 눌러써 예쁜 편지 봉투에 넣은 편지를 발견하는 때였다. 편지 봉투는 늘 분홍색이었고, 겉면에는 스티커 몇 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우표까지 야무지게 붙이고 주소를 뺄뺄뺄하게 적은 편지 봉투를 우체통 입에 넣어주면 꼬맹이들의 임무는 끝났다. 친구의 편지는 육지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친구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곤 했다. 꼬맹이 둘이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대며 도착하는 곳, 그곳에는 새빨간 우체통이 있었다.

우체통이 편지를 삼킨 날이면 친구는 그날 내내는 흡족한 표정이다가 다음 날이 되면은 편지는 잘 갔을까, 집배원 아저씨가 내 편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쩌지, 흑여 바다에 빠지진 않았을까 전전긍긍이었다. 이들을 채 넘기지 못하고 안달 난 친구의 모습이

신기하고 또 재밌어서였을까.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고 하면은 그 무엇보다 친구의 편지가, 새빨간 우체통이 먼저 새록새록 떠오른다.

어느덧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고, 나도 친구도 섬마을을 떠났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얼마 전 찾아가던 유년 시절의 자그마한 마을은 더는 작다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구석구석 골목까지 가득 채운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밤늦게 알록달록한 네온사인은 9시만 되어도 깜깜해서 오들오들 떨었던 꼬맹이의 마을과는 괴리가 있었다. 그 괴리의 마을을 자박자박 걸다가 문득 새빨간 우체통이 떠올라 우체통이 놓인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빨간 우체통이 없었다.

우체통이 있던 자리는 땀 뚝뚝 흘려 허전했다. 추억 하나가 땀 뚝뚝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한동안 우체통이 꼬맹이들을 다정하게 내려다보았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굽이치는 파도는 그대로인데, 골목은 변했으며 우체통이 없는 마을. 겨우 발걸음을 돌렸으나 허전함과 허끝에 감도는 씁쓸함을 지울 순 없었다.

손 편지를 쓰는 시대는 갔다고들 한다. 이메일 한 통, 메시지 한 통이면 되어서 굳이 멀리까지 손 편지를 써 보낼 이유는 없는, 극히도 효율을 추구해서 손 편지는 비효율적인 일에 불과한 시대. 우체통 안에는 편지 대신 분실물만 가득한 시대. 그 시대 속의 나는 가끔 친구의 편지 봉투를 상상한다. 땀뻘땀하지만 사랑스러운 글씨로 적은 주소와 우표. 그리고 우체통이 전해준 딸의 편지를 받은 아버지의 미소 같은. 또 정작 지금 사는 동네의 우체통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나를 꾸짖는 섬마을 꼬맹이들의 새빨간 우체통을.

오늘은 걸다가 우체통을 발견했다. 늘 걸던 거리에 우체통이 있었는데, 그걸 차마 못 보고 지나친 모양이었다. 물끄러미 우체통을 바라보았다. 저 우체통이 전했을 수많은 사연과 온정을 상상해 보았다.

아, 오늘은 옛 친구에게 손 편지 한 통을 보내야겠다. 새빨간 우체통에 담아서.



수신 불가

중고등부

김수빈



달뜬 마음이 우체통에 들어가는 날
 엄마는 편지에 벚꽃 하나를 넣어 보냈다.
 벚꽃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이뤄질 수 없는 소원을 담은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갔다.

어느새 매미가 우체국 앞에서 울었다.
 엄마는 텅 빈 우체통 안을 하염없이 뒤적였다.
 행운보다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라던 엄마는
 행복의 상징 세잎클로버를 딸에게 보냈다.

엄마는 딸이 좋아하던 밤을 상자에 가득 담았다.
 주소 적는 칸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허어엉.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우체국을 울렸다.

우체통에 성애가 끼어 차가웠다.
 우체통을 만지는 엄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는 집으로 반환된 편지를 확인했다.
 수신 불가 마크가 찍혀 있었다.

우체통의 독백



증고등부

조한민



나는 우체통입니다.

뒤로는 맑은 하천이 흐르고
앞에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약국이
오른쪽에는 어느새 제 높이를
훌쩍 넘어버린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지요.
조용한 이곳에 나는 꽤 오랫동안 있었네요.

검은 단발머리 여학생을 남몰래 좋아하던
남학생의 풋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애뜻한 편지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간 막내아들의
걱정과 응원의 말이 꼭꼭 담긴 편지
저에게 사랑과 그리움이 전해지던
이전에 하루하루를 추억합니다.

빨간 내 몸은 어느새
군데군데 녹이 슬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제 앞을 오고 가던 분주한 사람들과
한참을 서서 편지가 잘 도착하길
기다리던 따듯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과 내리는 여름비
떨어지는 낙엽, 하얗게 쌓이는 첫눈
천천히 변해가는 시간과 함께
나는 늘 편지의 꿈을 그리며
이 자리에 묵묵히 서있습니다.



10년을 전달한 우체국



중고등부

김연주



할머니에게는 10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다. 10년 전, 유치원에서 편지라는 것을 처음 배운 내가 할머니께 써서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도 할아버지께 생일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셨다. 어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의 편지 쓰기를 도와드렸다.

한글을 배우지 않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도, 어른들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서툰 글씨체로 가득한 할머니의 편지는 한 달 만에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 진심이 담긴 편지는 주인공에게 전해지지 못하였다. 할아버지가 생신 며칠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는 10년 동안 할머니의 품속에 고이 간직되고 있다. 할머니는 일 년에 한 번 우체국에 가신다. 할아버지 생신 3일 전에 말이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거절하셨던 직원분이 시간이 지나자 귀찮다는 듯이

“또 오셨어요? 할머니, 그 편지는 못 보낸다니까요.”라고 말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할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지곤 했다.

올해는 부모님의 제안에 내가 할머니와 함께 우체국에 갔다. 할머니가 걱정되는데 내가 아니면 혼자 가실 것 같다고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죄송하다고 하는 것도 모두 내 몫이었다.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짜고 갔는데 처음 보는 직원분이 계셨다. 예상 밖의 일이라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하자고 스스로 주문을 외웠다.

심호흡을 하고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갔다. 작고 거친 손에 편지를 꼬옥 쥐고 우물쭈물 거리는 할머니에게로 직원분이 웃으며 다가오셨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편지를 하나 부치려고 하는데, 주소가 하늘나라입니다.”

잠깐 멈칫하시는 직원분이 할머니께 상처를 주기 전에 얼른 죄송하다고 말하려는데 웃으며 입을 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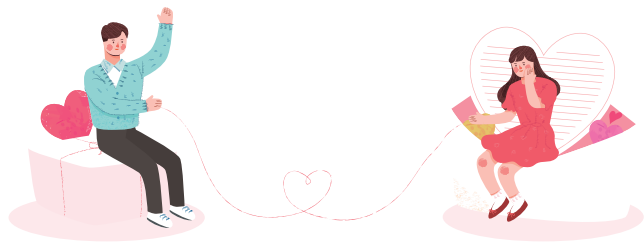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그때 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할머니와 나는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꾸벅거렸다. 할머니의 후련한 손과 표정에 멀게만 느껴졌던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가족의 웃음꽃이 피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생신만 되면 10년 만에 전달된 편지를 읽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거라며 밝게 말씀하신다.

선물 같은 그 우체국은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선사하였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10년을 전달해 주었다. 미안함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웃으며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

10년 만에 웃음을 되찾게 해준 우체국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전해주고 싶다.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제31회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집



| 발행처 | 우정인재개발원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 전 화 | 041)560-5313

| 디자인·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과 함께하는

2023 우체국 문화전



우정인재개발원